

공군

www.airforce.go.kr

행정간행물

25090-33246-44-9800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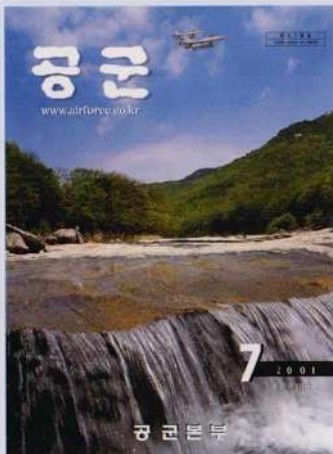
2001

통권 제277호

공군본부

C O N T E N T S

지휘봉	3
이달의 전쟁영웅	4
칼럼	5
생각해 봅시다	7
공군은 지금	8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	11
기획특집	12
Air Power	14
항공기 열전	16
공군 A to Z	17
Zoom In	18
현장탐방	20
공군이 변한다	21
지상강좌	22
이달에 만난 사람	24
F-X Q & A	26
I Love Air Force	28
문화가 현장	30
문화마당	32
마음으로 읽는 글	33
마음의 양식	34
Green Air Force	35
범무상담	36
기상전망대	38
이달의 독립운동가	40
이달의 문화인물	42
이달의 호국인물	43
강력 추천! 공군 추천!	44
공군, 나의 참전!	45
우리부대 최고	46
장병문예	47
공군 25시	48
알립니다	49
신간안내	50
폭격의 명수, 고광수 공군 대위	51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공군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52
젊음과 시간	53
미래 항공우주력의 발전방향	54
중심(重心)과 항공력(3)	55
수직 이착륙기 AV-8 Harrier	56
공군인이 알아야 할 50가지 질문과 답(3)	57
군수사령부, 정보화 유공 최우수기관 선정	58
최첨단 디지털 공군을 위하여!	59
공군대학 디지털 도서관 자료복사시스템	60
미래 항공산업의 주춧돌 군수사령부 항공부품 상설 전시장	61
화해협력과 안보	62
30여년 습착지침을 발간한 강상을 준위를 만나	63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입선한 홍성우 소령	64
F-X 50문 50답(1)	65
이제 하늘을 보면 가슴이 설레인다	66
수송기 타고 본선회로	67
밀레와 공군	68
엄기적인 그녀	69
'2001 서울 국제도서전'을 다녀와서	70
문화의 전승과 새로운 창조,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71
자가용 타던 날	72
여유, 그리고 멋	73
지구 온난화 현상	74
호적에 빨간 줄(II)	75
청도도가 익어 가는 7월에	76
김승학(金承學)	77
'어부가'의 작가 농암(農巖) 이현보	78
육군 준장 김용배(金龍培)	79
나에게 오라~ 아니 공군으로 오라!	80
산사람에서 공보장교, 그리고 이제 다시 사회로	81
제20전투비행단 무장대대 이국진 원사	82
방공포병장교로 첫발을 내딛으며	83
리스트의 협연	84
모형항공기대회와 좋은 추억 만들기	85
긴박한 상황에서 빛난 전투조종사들의 애민정신	86
2002학년도(제54기) 공군사관생도 모집 外 5건	87
전쟁과 기상 外 4건	88



발행일자/2001년 7월 2일(통권 제277호), 발행인/공군참모총장, 발행처/공군본부

정호공보실 02-506-6234, 042-552-6234, 편집·디자인·인쇄/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간접 신고/대공 상담은 국군 기무부대로... ☎ 080-777-1113

인터넷 www.airforce.go.kr



참모총장 공군대장 이억수

지난 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산가족 상호 방문과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간 교류협력분야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군사우선정책을 고수하여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재래식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군사력을 전방으로 추진 배치하는 등, 군사능력과 위협의 실체에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추호도 흔들림없이,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현시점이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이 병존하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임을 주지하고, 장병들에게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인 敵'임을 명확히 인식시켜, 확고한 대적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공군지휘관회의 훈시말씀 중에서 -

폭격의 명수, 고향수 공군 대위

공군본부 군사연구실



1차 공격을 마친 고향수 중위는 언제나 그렇듯이 위장된 적 탱크를 공격하기 위해 화망을 뚫고 2차 공격을 감행하다가 동체 연료탱크에 피탄되었다. 그는 낙하산으로도 탈출할 수 있는 순간이었으나 평소부터 “나는 행복이야. 나는 영광이야. 나의 최후는 이 5만불 짜리 철관(F-51무스탕) 속에 들어가 그놈들 앞에서 깨끗이 나의 생명을 던질 수 있으니...”라고 말한 대로 애기(愛機)와 함께 적 고사포 진지에 돌입, 자폭하고 말았다.

고향수 대위는 1929년 10월 5일 전라남도 장성군 서산면에서 태어났다. 1945년 6월에 광주 서중학교를 졸업한 후 1946년 10월에 미군병원 통역원으로 근무하다가 1949년 6월 10일 육군 항공사관학교(현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사관생도들은 전선의 이동에 따라 서울, 대구, 제주, 진해기지로 옮겨 다니며 교육을 계속했고, 마침내 1951년 7월 10일 공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고향수 소위는 임관과 동시에 사천기지의 제15교육비행전대에서 L-5, T-6, F-51의 정규 비행훈련과정을 마친 후, 후배양성을 위해 비행교관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2년 12월 1일 강릉전진기지 제10전투비행전대 제12전투비행대대에 배속되었다. 동년 12월 14일부터 출격을 시작한 고향수 중위는 출격에서 언제나 적 진지에 폭탄을 정확히 명중시켜 ‘폭격의 명수’라는 명성을 얻었다.

1953년 7월 18일, 그는 작전장교로서 이날의 출격계획을 수립한 후, 자기도 출격해야 하겠다고 상관에게 출격허가를 받고 제1편대군 제2편대장으로 출격하였다. 공격목표는 중부전선 시변리 북방 11km 지점의 덕동마을 산 계곡에 있는 적 병력집결지였다. 목표상공에 도달, 적의 고사포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강하하며 조종간의 단추를 누르자 연기 속에 불덩어리가 눈앞에 들어왔고, 목표는 완전 파괴되었다. 1차 공격을 마친 고향수 중위는 언제나 그렇듯이 위장된 적 탱크를 공격하기 위해 화망을 뚫고 2차 공격을 감행하다가 동체 연료탱크에 피탄되었다. 그는 낙하산으로도 탈출할 수 있는 순간이었으나 평소부터 “나는 행복이야. 나는 영광이야. 나의 최후는 이 5만불 짜리 철관(F-51무스탕) 속에 들어가 그놈들 앞에서 깨끗이 나의 생명을 던질 수 있으니...”라고 말한 대로 애기(愛機)와 함께 적 고사포 진지에 돌입, 자폭하고 말았다. 이날 한국공군은 50회의 최대출격을 감행했고, 고향수 중위는 52회째 출격에서 전사함으로써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마지막 전투조종사가 되었다.

그가 쓴 1952년 2월 17일의 일기장에는 “나에게 직접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말라. 말에 있어서 좀 낮게 부드럽게 하라. 자기 몸을 희생시킴으로써 남이 좋아하는 줄 알라. 가능한 항상 미소를 띠어라”라고 적혀 있어 그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고향수 중위는 우수한 한국조종사에게 수여하는 미공군 비행훈장과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사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위로 추서되었다. ④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공군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송영선

신속하게 적의 행위를 파괴할 수 있는 항공우주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공군이 지향해야 하는 주요목표가 될 것이다. 즉, 항공우주력은 전략적
사고를 전장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대두되어야 한다.

정확히 1년 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의 급물살 속에서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다.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한반도의 정세가 전개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북한의 비타협적인 자세가 계속되는 상황, 북한이 제한적으로 화해, 협력을 시도하는 상황, 마지막으로 남북 화해협력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상황. 장기적으로 한국은 세 번째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중요한 군사전략목표라고 할 수 있다.

억제전력 확보를 위한 강한 공군력 건설

향후 남북한 관계발전 전망과는 별도로 현재까지의 한국 군사력의 발전은 북한 지상군 위협에 대응하는데 편중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동북아 안보환경의 유동성이나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한국군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군 구조로서는 미래 전장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들이 있다. 미래전의 승패가 합동작전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전쟁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력이 항공전력이라는 것은 걸프전을 선두로 한 최근 일련의 전쟁을 통해 증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를 고려해 보면 한국은 주변국들과의 잠재적인 분쟁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직접적인 전력경쟁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변국과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며 이는 투자능력을 확보하여 방어적 억제력을 갖추으로써 가능하다. 즉 공세적 행동을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억제력을 과시하고 전략적 거부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공군력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자구적 억제전력과 전략적 타격전력을 확보하여 북한과 주변의 불특정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공군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전략적 비전을 가진 인재 양성

그러면 이러한 억제력 확보를 위해 어떻게 공군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현대 전쟁의 형태는 재래식 전쟁을 벗어나 정보전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정보전화시대에 효과적인 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보다 한발 앞선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수반하는 공군력의 현대화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먼저 유동적인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 공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과 분석력을 가진 전략가를 키우는 일이다. 첨단화된 무기체계만으로는 항공우주군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힘들며 전략적 비전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향후 항공력은 전통적인 공중우세 개념을 넘어서 지상제압 및 해상제압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어 갈 것이며, 이 경우 공중 및 우주우세 없이는 지상이나 해상 작전은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속하게 적의 행위를 파괴할 수 있는 항공우주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공군이 지향해야 하는 주요목표가 될 것이다. 즉, 항공우주력은 전략적 사고

를 전장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대두되어야 한다.

물론 공군력의 현대화 추진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나 현대화된 서구 장비에 의존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장비의 국산화에 대한 여론이나 바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에 관련된 기술이나 비용측면에서 본다면 무기체계의 독자적인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요원한 문제이다.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군사전략과 군사력 정비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예지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계획수립, 강한 추진력 없이는 결코 강력한 군대, 강력한 공군을 만들어 갈 수 없다.

이를 위한 힘찬 도약의 발판에 공군은 두 발 모두를 디디고 있다. 미래 지향적이고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우수한 인력확보와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화된 무기체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공군의 힘찬 도약을 기대한다. ⊕

젊음과 시간

공군본부 중위 박 석 희

작가 민태원 선생은 그의 불후의 역작(力作) 『청춘예찬』에서 청춘의 무한한 가능성과 역동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가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수많은

성현들과 인생의 선배들도 청년 시기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청년시절만큼 시간이 매우 빠르게 흘러가는 때도 없음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면 청년은 그 귀중한 젊음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그것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미루는 버릇, 연기하는 습관이 생기면 출발이 어렵게 되고, 출발이 어려우면 성공은 더욱 요원해집니다. 히말라야에 가면 야생조(野生鳥)가 하나 있는데 낮에는 노닐다가 밤이면 다른 새의 둥지에 기거하며 ‘내일은 집을 지으리’ 하고 우짖기만 하다가 결국 일생 동안 자신의 둥지를 한 개도 못 짓는다고 합니다.

둘째, 시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똑같은 일도 사람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젊음의 시간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또 모두에게 동일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시간을 유효하게 선용(善用)하는 젊은이야말로 내일, 그리고 먼 훗날을 걸머지고 갈 푸른 제복의 사나이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적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더 값진 청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남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나 남의 뒤를 쫓는 사람은 남보다 앞서 사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 남

에게 앞선다는 것은 같은 일을 해도 남보다 2배, 3배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넷째, 젊을 때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은 언제나 때가 있는 법입니다. 청년기에 해야 할 일과 중·장년기 혹은 노년기에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젊음은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시기이니 만큼 좀더 도전적이고 활력 있게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젊음의 시간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또 모두에게 동일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시간을 유효하게 선용(善用)하는 젊은이야말로 내일, 그리고 먼 훗날을 걸머지고 갈 푸른 제복의 사나이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 장병들은 군복무 중에도 시간에 대한 이와 같은 철칙(鐵則)을 변함없이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R O K A



- 1 공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이억수 참모총장
- 2 '은나래 부인회 돕기 바자회'가 열린 서울 대방동 보라매집을 방문,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는 이억수 참모총장
- 3 대전 보훈병원을 방문, 입원·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를 격려하고 있는 이억수 참모총장
- 4 설용수 교수 초청, 공군본부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 실시
- 5 공군대학에서 개최된 '항공전략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남북 화해 협력 시대의 공군력의 발전방향을 논의



6 언론인 30여명을 초청, 작사·제20전투비행단·제305방공관제 대대 견학을 통해 공군의 활약상을 소개

7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방송작가단을 초청, 제18전투비행단 견학과 울릉도·독도 체험비행 등으로 안보의식 제고와 공군 이해의 기회 마련

8 공군사관학교 개교 52주년 기념음악회에서 기념연주를 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군악대

9 제19전투비행단에서 개최된 '01년도 공중전투지원 평가대회에서 부대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룬 최정예 정비사와 무장사

10 항공기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제29전술개발훈련 비행전대 장병들





11 카고 트레일러를 이용, C-130 수송기에 공수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제18전투비행단 장병들

12 제11전투비행단에서 개최한 제8회 공군참모총장기 태권도 대회에서 겨루기를 하고 있는 참가장병들

13 퇴역 수송기를 활용한 항공기 면회실을 마련, 면회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제5전술공수비행단

14 역대 비행단장을 초청,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한 제10전투비행단

15 한국해양구조단과 공동으로 웅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장병들





▲ 인근지역 초등학교 일일 명예교사로 위촉, 강의를 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



▲ 척추장애 윤석인 수녀의 제주 봉사활동을 돕기 위해 서울-제주간 정기공수편을 통해 특별수송을 지원한 제15 혼성비행단



▲ '천사들의 놀이 한마당' 행사에서 장애 어린이의 악기연주를 도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한 공군 군악대 장병들



▲ 농촌일손돕기를 펼치고 있는 제16전투비행단 장병들



▲ 가뭄 극복 상황실을 운영, 각종 장비를 신속히 동원하여 발작물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제11전투비행단

미래 항공우주력의 발전방향

미 공군 참모총장 특별고문 찰스 링크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현대사회는 세계정세에 있어 충분한 안정성을 획득하려 노력한다. 이를 위해 현대사회는 유사한 방어 전략을 채택하기 마련이다. 첫째로, 확장적이거나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전략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사회는 일반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거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노예화시키기 위하여 공격을 감행하지는 않는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효율적인 방어를 통하여 자국의 영토를 보전하고 자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의 2차적인 관심은 대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안정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 중 다수는 자국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의 잠재적 위기 상황이라도 자국의 세계적 이익을 위해서 개입하게 된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은 자국 청년들을 군사작전에 투입하는데 있어 상당한 수준의 신중성을 보일 것이다. 현대세계에서 전쟁의 공포가 대중의 시야로부터 숨겨지는 “아득한(distant)” 전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현대 민주주의사회는 전통적 의미의 정복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아군, 심지어는 적대국 시민의 사상에도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모든 현대사회에서 점증하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의 혼합된 효과는 적국의 영토를 빼앗거나 자원을 활용하거나 적 국민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적국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려는 쪽으로 발전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적국이 취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하여 현대사회는 최소의 인명희생으로 최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을 갖기 희망한다.

인류의 초창기부터 사람들은 논쟁하고 다투어 왔다. 이와 동시에 인류는 지적 능력을 통해 다양한 용도의 연장을 만드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 이러한 용도 중 한가지가 전쟁의 수행이었다. 몽둥이에서 창으로, 활에서 투석기, 총 등으로 변하는 장기적 경향을 살펴보면 특정한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적국과 충분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적국에 영향을 끼침으로 적국에 의해 유사한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하려 한다. 달리 말해 근접지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아군의 손실과 적군의 손실 비율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피해 없이 먼 거리에서 적국에 영향을 끼치려는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욕망을 가지는 것이다.

자국의 피해 없이 원거리에서 타국에 영향을 끼치려는 장기적 군사 경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항공우주력을 선호해 왔다. 속도(speed), 거리(range), 기동성(agility),

정밀성(precision), 그리고 치명성(lethality)은 스텔스(stealth), 원거리 능력(standoff), 정보분야의 발전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군사문제에 있어 3차원 세계에 대한 충분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능력이 바로 항공 우주력에서 나타난다.

항공우주력의 특성과 사용목적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성숙되어 왔다. 관측에서 정찰까지, 방공에서 근접지원까지, 차단에서 전략폭격까지 광범위한 활용력을 보이면서 항공우주력은 그 특유의 다양성을 과시해 왔다.

결프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육군은 육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군은 해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군은 공군에 대응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었다. 그러나 슈워츠코프 장군이 공군에 의한 항공전역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패



러다임은 영원히 깨지고 말았으며 적 지상군의 효율성에 치명적인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동시에 가장 복잡한 통합방공체제를 포함한 적 지상군에 대항하는 이러한 항공 우주력의 효율성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앞으로 모든 장차전의 구성요소로 지상군 작전에 앞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항공전역이 활용될 것이다. 적대적인 주변국에 의해 자국이 위협을 받는다는 지역 안정을 위해 해외로 군사력을 투입하는 경우에 항공우주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항공우주력이 지·해상군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지·해상군이 항공우주력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크다는 것 역시 명백해졌다. 이제 공군은 국방에 있어 자신이 차지하는 역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주요 항공우주력 발전 사례

월 남 전

월남전 기간 동안 항공우주력의 효율성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월남전 말기에 등장한 정밀유도무기와 발전된 공대공 능력은 미래의 항공우주력에 대한 혁명적 가능성을 암시해 주었다.

결 프 전

결프전은 항공전역이 전쟁의 중심이 된 최초의 전쟁이며 방대한 규모의 스텔스, 정밀폭격 효율에 기반을 둔 표적 선정, 병행전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쟁이다. 또한 최초로 전역수준과 전지구적 차원에서 항공과 우주력이 결합된 전쟁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전역수준의 현대

항공우주력이 사용되었다. 결프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상작전에 앞서 항공우주력이 지상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과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항공우주력이 지·해상 작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보스니아 내전/코소보 전쟁

결프전 이후 미국과 연합국들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의 일방적으로 항공우주력만을 사용했다. 결프전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공전역은 지상작전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상작전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루어졌다.

중심(重心)과 항공력(3)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6월호의 "초기 항공전략가들의 중심(重心) 사상"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현대 항공전략가들의 중심 사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핵무기시대 항공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해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항공전략사상가들은 한결같이 전략폭격을 통하여 적의 주요 중심부를 파괴하고 전쟁수행 의지를 말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사람들로서 항공기 성능발달이 미약했던 시기에도 바람직한 항공력 운용을 위해 표적선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의 주요 중심을 식별하려고 노력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항공력의 중요성이 점차 입증되어갈 즈음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인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는 전세계 군사지도자들에게 커다란 파급을 일으켰으며, 핵무기는 예전의 모든 경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전쟁방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핵무기 시대의 전쟁경험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핵전쟁의 이론을 정립하고 밝히기 위해 군 출신이 아닌 새로운 계통의 민간 학파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제안했던 핵전쟁 이론은 냉전기간 동안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따라서 제복을 입은 군사전략가들은 너무 일찌감치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를 포기하고 민간에 이양해 버렸으며, 미래전이 핵무기를 수반할 것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전략적 수준에서 재래식 항공력의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한 항공전략사상가가 한동안 나타나지 못했다.

그러나 냉전기간 동안에 발생한 베트남전을 통해 핵전쟁은 새로운 연구분야였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으며, 재래식 전략의 재활성화를 촉진시켰다. 따라서 항공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어 오늘날 저명한 항공력 이론가인 존 보이드와 존 와든이 등장했다.

존 보이드의 주요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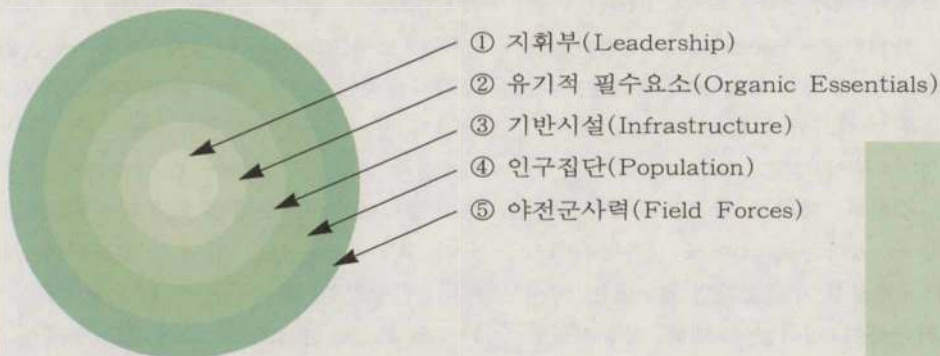
한국전에 F-86 전투조종사로 참전한 경험이 있는 존 보이드는 한국전에서 10대 1의 우세를 보인 MiG-15에 대한 F-86의 강점을 신속한 기동능력으로 보고 기동에 대한 전술적 개념을 분쟁의 일반이론으로 확대했다. 그는 적보다 신속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관측(Observation)-정향(Orientation)-결정(Decision)-행동(Action)의 네 가지 의사결정 과정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적의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늦추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는 'OODA Loop 모델'을 고안했으며, 전략적 마비를 달성할 수 있는 적 지휘부의 도덕적, 정신적, 물리적 연결고리를 주요 중심으로 고려했다. 그의 이론은 산업시설의 파괴를 주장한 초기 항공전략사상가들의 심리적, 정신적 마비개념을 지휘·통제에 대한

마비개념으로 전환하여 전략적 항공이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존 와든의 주요 중심

또 한 명의 현대 항공전략사상가인 존 와든은 1986년 국방대학원 재학시절 항공전에 대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1988년 『항공전역(The Air Campaign)』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 후 그는 1990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국방성에 배속되어 자신의 이론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항공전역을 계획했다. 그는 전쟁이란 항상 물리적, 심리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이지만 심리적 요소는 측정하기 힘들고 파악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항공전략가들은 적의 물리적 징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적을 하나의 체계로 분석하면서 모든 전략적 목표물은 5개의 구성요소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과 같이 다섯 개의 동심원으로 자신의 계획을 도식했다. 중앙의 원에는 주요 중심으로 적의 지휘부를 두었으며, 지휘부 바깥으로 체계의 작동에 있어 중요성이 떨어지는 유기적 필수요소, 기반시설, 인구집단, 그리고 가장 외곽의 원에는 중요성이 덜하지만 공략하기 매우 어려운 적의 야전군사력을 배치했다.



5개 동심원 모델의 핵심은 전략수립시 최우선적인 관심을 적 지휘부에 집중하라는 것이며, 지휘부의 파괴가 체계의 전체적인 물리적 마비를 가져오고 다른 동심원의 전략적 중심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은 부분적인 마비뿐 아니라 지휘부에 견디기 힘든 심리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력은 전략적 마비를 달성할 수 있는 전쟁승리의 결정적 전력

초기 항공전략가들과 현대 항공전략가들의 중심 사상을 비교하면, 초기 항공전략가들은 주요 중심으로 산업시설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했으나 보이드와 와든은 적 지휘부와 같은 비경제적 요소를 더욱 강조했으며, 보이드가 적 지휘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붕괴시키고자 한 반면 와든은 그 형태를 붕괴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항공력이 적의 중심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하여 정신적·물리적 차원의 전략적 마비를 달성할 수 있는 전쟁승리의 결정적 전력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 현대 항공전략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㉑

수직 이착륙기 AV-8 Harrier

전투발진단 무기체계실

프랑스의 항공기 설계자인 Michel Wibault가 4개의 노즐을 90도까지 회전시킬 수 있는 분사조종방식의 수직 이·착륙기를 10여년간 연구한 이후 V/STOL(Vertical or Short Take off and Landing)기를 등장시켰는데 그것이 1960년 11월 최초 비행을 실시한 Hoker P-1127 수직 이·착륙기이다. 영국 공군은 1969년 이를 실용기로 채택하고 "Harrier"라고 명명하였으며, 1971년에는 미 해병대가 AV-8A라는 명칭으로 운용을 개시하였다. Harrier기가 타전투기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파괴된 활주로에서도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상륙작전에서 다소나마 교두보를 구축한다면 Harrier는 즉시 그곳에 진출하여 상륙군에 대해 항공지원을 시작할 수가 있다. Harrier의 강점은 협소한 지역에서의 수직 이·착륙뿐만 아니라 적 전투기와 근접전투시 엔진의 추력 방향을 급변시켜 갑자기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데 있다. 적기를 역으로 추적하여 격추할 수 있는 항공기는 현재 V/STOL뿐이다.

영국 공군과 미 해병대는 항공기 개량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는데 중량 감소를 위해 기체를 그래파이트(Graphite), 에폭시(Epoxy) 복합소재 등과 같은 가벼운 소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으며, VTOL 양력 증가를 위해 양력증가장치(LID : Lift Improvement Device)와 STOL시의 양력 증가를 위한 고양력형 대형주익 및 플랩을 채택했다. 개조 중 영국공군의 제안에 의해 전연연장장치

(LERX : Leading Edge Root Extension)를 설치하여 기동시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이 개량형 항공기는 미국 M.D사와 영국의 BAe사가 공동으로 생산하여 미 해병대와 영국공군에 AV-8B로 명명되어 인도되었다.

무장능력은 기관포(25mm) 1문과 AIM-9L, 매직(Magic) 등의 공대공 미사일과 AGM-65E 매브릭(Maverick) 공대지 미사일 등이 장착가능하며 수직 이·착륙시에는 3,062kg, 단거리 이·착륙시에는 7,710kg이 탑재가능하다. 현재 AV-8B, Harrier GR.MK5는 영국공군과 미 해병대, 스페인 해군에서 운용되고 있다. AV-8B의 실전 경험은 걸프전이 최초이나 원형기인 영국공군의 Harrier GR.MK3과 Sea Harrier는 1982년 포클랜드 분쟁에 참전하여 Harrier 특유의 성능을 발휘하여 공중전에서 다수의 아르헨티나 전투기를 격추하였다. 1991년 걸프전에서 최초로 투입된 미 해병대의 AV-8B는 대지공격에서 전차를 파괴하는 등 전과를 올렸으나 공중전 상황이 연출되지 않아 Harrier의 독특한 성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지만 Harrier의 능력은 해병대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성능 및 제원

- 제작사 : McDonnell Douglas/BAe사
- 기고/기장/기폭 : 3.55m/14.12m/9.25m
- 엔진 : 1×Rolls-Royce Pegasus-61 Turbo-Fan
- 승무원 : 1명
- STOL 이륙거리 : 366m

공군인이 알아야 할 50가지 질문과 답(3)

우주력이란?

우주력은 우주자산을 이용하여 군사적·정치적 효과를 창출하는 능력으로서 임무수행을 위해 우주로부터 발생하거나 우주에 존재하고, 우주를 통해 이동하는 군사력을 말하며, 항공우주력에 포함된다.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써 광범위한 실시간 정보 획득을 통하여 공중 및 우주공간을 관리할 수 있다.

속도는 부여된 임무를 단시간에 효과적

으로 완수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며 적시 적소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기민한 집중, 분산 능력이다.

거리는 지표면의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작전수행을 위한 먼 거리에 신속히 도달 가능한 특성을 말하며 전쟁의 수준 및 상황에 따라 적의 중심 또는 적지 중심에 위치한 표적에 대하여 공군력을 직접 투사하거나 광범위한 작전지역에 걸쳐 병행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융통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상황을 주도적으로 창출하여 우군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특성으로서 융통성은 공세적 행동으로 극대화되며 전장에서 주도권 확보 및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상과 같은 공군력의 특성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복합적인 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공군의 능력을 창출한다. ⚡

공군력이란?

공군력은 지·해상 및 공중 공간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군이 보유한 군사력으로 인력, 무기체계, 기지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유형적인 요소와 무형적인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공군력은 종종 항공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넓은 의미에서 공군력은 항공력에 포함되므로 용어 사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군력의 특성은?

공군력의 특성은 고도, 속도, 거리, 융통성이다. 고도는 공중 및 우주공간에서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며 자연 및 인공 장애물 등의 제한요소를 극복하고 지표면의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군수사령부, 정보화 유공 최우수기관 선정

군수사령부 소위 이 지 훈

보급, 정비, 수송 등 공군의 후방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군수사령부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장비 정보화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정보화 유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6월 8일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6월 정보문화의 달에 즈음하여 각 기관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정도와 정보통신 윤리확립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여도,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화 정책개발 기여도 등의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이번 평가에서 군수사령부는 유수의 정부기관을 제치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토한 것이다.

군수사령부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각종 경진대회에 출품되어 '정부주관 중앙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금상', '국방부 경진대회 금상' 등을 수상하여 이미 그 우수성을 입증받은 바 있는데, 이번 대통령 표창을 계기로 명실공히 기술공군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게 되었다.

업무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완전 전산화

실제로 군수사령부는 지난 2년 동안 자체 전산인력을 활용, 군수업무용 소프트웨어만도 10여 개 이상을 개발해 100억원의 개발비용을 절감했으며, 이들 소프트

웨어를 업무에 활용하여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급정보체계 2000'은 지난 30년 동안 사용해온 수기식을 겸한 반자동식 공군 군수업무 체계를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꾼 대표적인 전산 프로그램으로 지원부대인 군수사령부와 실수요자인 각급 부대, 물자를 저장·불출하는 보급창, 그리고 생산자인 국내외 방산업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실시간 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금년 4월부터 보급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 군수물자의 조달과정과 시간, 인력을 대폭 줄였을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최적의 군수지원을 실현, 과보유 자산을 최대한 억제해 연간 600억원 이상의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관리 기반체계'도 역시 주목을 끌고 있다. 21세기 지식 경영시대에 발맞추어 업무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전 장병이 공유하기 위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규정, 교육자료, 개인의 경험 및 노하우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 언제든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의 적용으로 증견 장교들의

찾은 보직이동
과 단기복무 장
교 및 병사들의
전역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
지함은 물론, 개
개인의 업무 효
율을 더욱 향상
시키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군수사 인터
넷 홈페이지’
를 개설하여
군수품 납품절
차를 비롯한
항공부품 국산
화 및 민간참
여 방법 등 다
양한 군사정보
를 공개해 대
민 서비스의

‘유류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 군용
유류의 관리체계를 개선한 것도 이번 평
가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작용했다. 항공
유를 비롯한 모든 군용 유류의 획득, 재고
관리, 현황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관장하
도록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각 기지별 재
고관리 현황을 비롯한 유류품질, 관리상
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시에 조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류와
관련한 각종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
게 되었다.

정보화 교육의 전진기지

이밖에도 군수사령부의 장병 정보화 교
육에 기울이는 관심도 각별하다. 최신 장
비와 시설을 갖춘 전산교육장을 조성, 장
병 및 군무원들에게 다양한 정보화 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역을 앞둔 장병들
에게는 집중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인터넷 기사 2급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등 ‘국민교육 도장으로
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군수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 역시 언
제든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금년 3월

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부대는 서버, PC, LAN, WAN망
구축 등 정보화 기반 조성 작업에도 박차
를 가하여 통합 자원관리와 더불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였다. 이밖에도 바이러스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바이러스 감시 시
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용하고 있으며, 전
산 시스템의 취약 요소 및 해킹 가능성을
수시 점검하는 등 ‘정보 보호활동’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항공우주군을 향한 작은 발걸음

미래전은 하늘과 우주를 영역으로 하는
항공우주전의 양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첨단 무기체계가 주를 이룰 미래에 정보
화, 과학화는 공군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
적인 문제이다. 현재 군수사령부의 수준
은 이를 위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
로 공군은 부단한 노력으로 정보화, 과학
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군의 일차적 목표인 국가 안보의 파수꾼
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확보
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

최첨단 디지털 공군을 위하여!

- 정보통신 학술세미나 현장을 찾아서 -

제7항공통신전대 중위 박진철

최첨단 정보통신 전자전은 어느덧 현실로 다가온 신(新)전장의 모습이다. 이러한 신전장에서 작전의 핵심요소인 항공력의 운영은 검증된 정보통신 기술지원체계의 완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으며 또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새로운 디지털 전장환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군내외의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총집결하여 학술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공군 제7항공통신전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진지한 분위기였다.

“분산·분리된 작전지역간 통합작전의 수행 및 실시간 전술정보 교환능력 구비를 위한 우리의 기술개발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전술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구체화시켜 다가오는 전장환경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정책방향은 첨단 핵심기술분야 중점육성을 통하여 신기술, 신개념 무기 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항공 무기체계와 연계 가능한 ECM장비 연구개발, 차기 국내위성 및 정찰체계의 활용기반 구축, 표적정보 생성기술개발을 위한 군사정보 융합체계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위성 탐색개발 단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체제개발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술 무선망 구축은 지형



환경의 극복을 통해 전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야만 비로소 대전자전 기능을 보유할 수 있고 전·평시 통합된 지휘통신체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군이 추구

하고 있는 C4I체계의 핵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각종 주제발표가 시작됨과 더불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보화 공군의 건설을 위한 기초방안에서부터 민관군 협력하의 위성통신 개발 및 운영방안까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오가며 진행되던 토론에서 어느덧 발표자와 토론자의 구별은 허물어지고 오직 정보통신체계를 확립시키려는 혁신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군내외의 정보통신 전문가와 실무진들은 부단한 기술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체계의 구축이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의 필수적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그려가고 있는 듯했다.

정보통신 학술세미나를 뒤로 하고 나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았다.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뚜렷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을 헤쳐가는 우리 정보통신요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

21세기 지식정보화 구현을 위한 첫걸음

- 공군대학 디지털 도서관 자료복사시스템 -

공군대학 고급지휘참모처 소령 박 석 찬



공군대학이 지난 99년 쌍방향 원격교육체계인 사이버 공군대학을 군 최초로 개설하여 군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연데 이어, 또 한번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 건립의 대장정에 첫발을 내딛었다.

공군대학은 21세기 디지털 도서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군 최초로 도서관 ROSS(Reference One-Stop Service)시스템을 구축하고 목원대를 비롯, 국회도서관, 서울대, 연·고대 등과 연계한 학술정보시스템을 마련했다.

최근에 실시된 ROSS시스템 시연회는 목원대 도서관 ROSS와 연계하여 실시되었는데, 국회 도서관의 국회편람, 서울대 도서관의 국정정세 학위논문, 목원대의 국외간행물 등의 원문을 시범 검색하고 복사해 봄으로써 최단

시간에 최소의 경비로 광범위한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ROSS시스템의 기대효과를 입증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ROSS시스템은 도서관을 이용, 참고자료를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소장처에 관계없이 원문을 최단 시간에 최소 경비로 열람 및 복사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체계이다.

따라서 육·해·공군대학 중 최초로 개설된 공군대학 ROSS시스템은 각 과정 입교학생 및 교관들에게 신속하고 광범위한 양질의 학술정보 및 연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군비전 2025」 구현을 위한 항공전략 연구와 지식전사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군대학의 ROSS시스템은 고품질의 콘텐츠, 통합형 정보, 강의·연구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도서관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군 도서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02년 7월이 되면 디지털 도서관 구축의 선봉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현재의 ROSS시스템이 디지털 도서관의 초기단계라 할지라도 도서검색뿐만 아니라 학술정보시스템과 연동한 방대한 자료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군 최고의 군사전문가를 양성하는 공군대학 교육의 내실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나아가 공군이 21세기 디지털 지식 강군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은 분명하다. (㊦)

미래 항공산업의 주춧돌 군수사령부 항공부품 상설 전시장

군수사령부 소위 이 지 훈

오래된 전투기 기종인 경우에는 부품생산 자체가 중단되어 획득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주고 도입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 항공부품을 국산화하게 되면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은 물론
공군력의 운영, 유지면에 있어서도 그만큼 효율적이 되는 효과가 있다.



도 항공부품 전시장에는 120여개 민간업체가 참가해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항공산업과 공군력의 병행 발전

항공부품 견본 전시장에는 900여 국산화 개발 대상품목이 상시 전시

항공부품 국산화로 600억원을 절감

군수사령부는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과 국방예산 절감을 위해 그 동안 4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 개방해 오던 '항공부품 국산화 견본 전시장'을 지난 6월부터 부품국산화에 관심이 있는 민간기업에 연중 개방, 상설 운영체제로 전환하였다.

군수사령부는 지난 1988년부터 항공부품 국산화 개발에 착수해 99년에 205억원, 작년에는 195억원 등 지금까지 약 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왔다.

지난 4월 25일부터 이들 동안 개최한 금년

되어 있으며 방문 민간업체가 요구할 경우 해당 부품과 관련된 세부자료(제품의 도면, 기술도서, 규격서, 견본)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참가신청 및 업체선정'은 예년처럼 4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 일괄적으로 접수받아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서 결정된다.

업체선정 절차는 먼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공장 규모와 자산, 생산력, 신뢰성 등을 평가한 다음 2차로 군수담당 실무자가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밀한 재평가 작업을 거친 후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이 체결되면



최초로 생산한 시제품에 대해서는 시험평가 및 국산화 인증 심의를 거쳐 '양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양산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군수사령부가 이처럼 항공부품 국산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항공산업이 타 분야에 비해 기술 파급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항공부품을 해외구매방식(FMS)에 의존할 경우 조달 절차가 까다롭고 심지어는 부품 획득 자체가 곤란해 항공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래된 전투기 기종인 경우에는 부품생산 자체가 중단되어 획득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주고 도입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 항공부품을 국산화하게 되면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은 물론 공군력의 운영, 유지면에 있어서도 그만큼 효율적이 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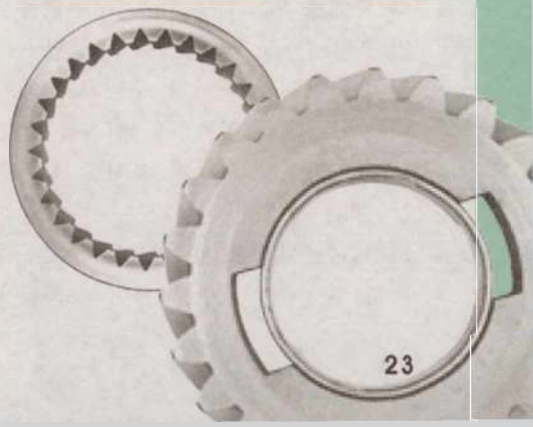
항공산업, 그 무한한 가능성

금년도에 국산화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항공부품은 항공기 엔진을 비롯하여 기체, 항공전자, 방공포, 기상장비 등 900여 품목으로 개발비용만도 모두 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

히 올해부터는 공군의 주력기종인 KF-16 전투기 부품 168개 품목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국산화할 경우 우리나라 항공부품 산업의 수준을 기존의 '아날로그 수준'에서 '디지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부품 산업은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항공기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은 무려 20여만 종에 이른다. 그만큼 국산화해야 할 부품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욱 많은 민간업체들이 항공기 부품국산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면 민간간의 기술협력 증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기술력은 물론 군의 전투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해협력과 안보

공군본부 중위 김도형

냉전이 종식된 이후 지구촌은 개방과 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해 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주변 4국도 실리를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반목과 대결을 강요해 왔던 외적 요인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도 그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 체제적 문제점들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상카드를 통해 국제사회에 진출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흐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과거의 냉전식 안보논리에 따라 북한을 압박하는 대북 정책만을 고수한다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과 불행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남북간 국력의 차이도 심화되어 이제는 체제 경쟁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경제적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이고, 군사적으로도 북한이 수적인 면에서는

다소 우위에 있으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충분히 역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한의 국력차 등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단순히 「평화를 지키는(peace keeping)」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보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평화를 만드는(peace making)」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소모적인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한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북한을 '붕괴론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과 시장경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변화론적 시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북한이 스스로 개방·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통일 지향적 평화공존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또 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튼튼한 안보태세로 평화를 지키면서,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2중적 접근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안보태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미 안보동맹에 기초한 튼튼한 안보는

화해협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며, 화해협력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화해협력의 중심이 되는 개념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외세의 지배, 그리고 분단과 냉전으로 얼룩졌던 지난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시대적 소명을 달성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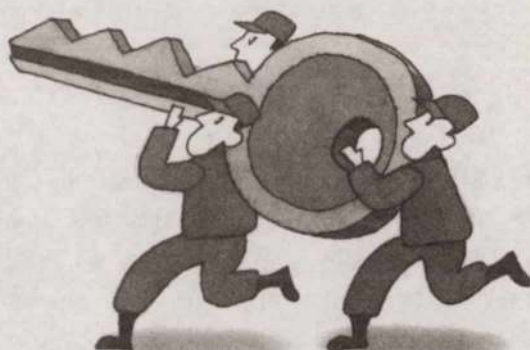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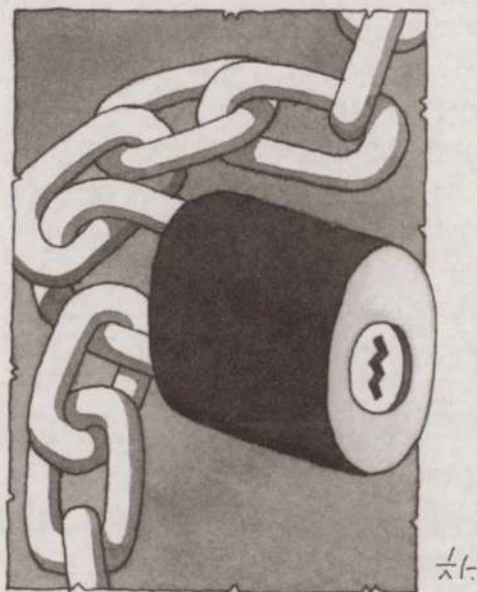
민족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현상황을 극복하고 남북한이 손을 잡고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 복지,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건설하여 세계의 일류 선진국가로 도약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님께서도 '한반도 시대의 구현'이라는 말씀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민족의 역량을 결집하여 한반도가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점이 되고, 대륙에서 해양

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가 되어 세계의 주역 국가로 부상하는 비전을 향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자고 역설하신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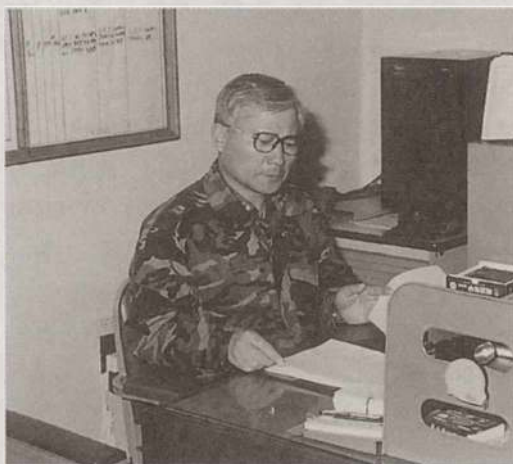
인류의 역사를 통해 자유와 평화 같은 이상적인 가치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남북 분단이라는 아픔을 치유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는 것도 많은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튼튼한 안보태세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화해협력 정책은 해변에 쌓은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안보는 화해협력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며 화해협력 정책의 배경, 추진 방향, 목표 등 모든 것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 ㊦



30여년 습작시집을 발간한 강상률 준위를 만나

대담 · 정리/제16전투비행단 중위 장 효 철



문무를 겸비한 풍류인 강상률 준위(姜相律·55). 단단한 체구와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전형적인 군인이면서 시서화에 도자기 굽는 재능까지 갖춘 선천적인 예능인이다.

그가 제16전투비행단에서 항공정비 감독관으로 당당하게 군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지난 33년간 투혼을 사르며 자유와 평화를 염원한 글들이 한 권의 시집으로 묶여 나와 화제다.

시집 제호는 「우리들 텃줄 묻힌 이 땅에서」로 110여 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이미 지난 1984년 반공 시집 「북소리 들리는 아침」을 펴내 육·해·공군에 진중도서로 보급하기도 했던 강준위는 항공기 정비분야에서 치밀하고 빈틈없는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으며, 부대 정신교육 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신세대 장병들에게 자유 수호 의지를 심어 주고 새로운 삶의 지표를 제시해 주는 등 상하

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참군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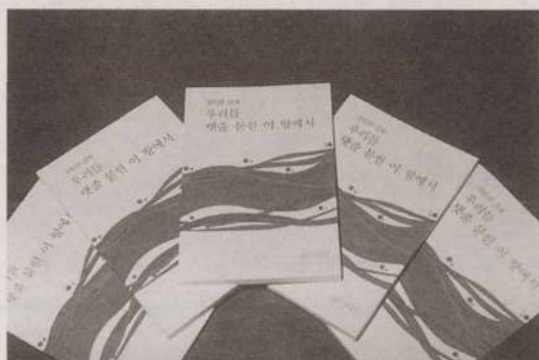
작품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1968년 9월 입대한 이후 1971년경부터 진중문에 창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저 습작하는 수준이었지요. 본격적인 계기는 그 이듬해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월남전이 한창이던 시점에서 파병을 지원했는데, 아쉽게도 몸이 온전치 않아 신체 검사에서 결격되어 마산 통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전화위복이라고나 할까요, 병실에 그저 가만히 누워 있다보니 이래선 안되겠다 싶더군요.

무료한 시간도 달래고, 또 당시 함께 입원해 있던 동병상련의 육·해·공군 장병들에게 뭔가 희망을 불어 넣어 빠른 쾌유를 비는 소박한 마음으로 그동안 습작했던 207편의 글들을 베니어 합판에 붓글씨로 적어 병원 휴게실에서 시화전을 열었어요. 반응은 꽤 좋았습니다.

물론 시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 의한 외부의 판단보다는 끝없는 내면의 고민을 통한 자기성찰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작품을 발표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이후로도 틈틈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습작 활동을 하면서 73년부터 전우신문에 하나 둘 제 글들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본격적인 작품활동에 들어간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적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나?

사실 선천성에서 오는 영감성과 즉흥성보다는 고통과 좌절의 연속에서 탄생되는 후천성에 매달려 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제 주변의 일들과 깊은 상념에서 시의 소재를 구하고 치열하게 고민해 가는 것이 전부지요. 이 제서야 두 번째 시집을 내게 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 일 겁니다.

시의 구성이 특이한데?

이번 시집에 수록된 전편의 시들은 연작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작품의 주제가 그 다음 작품의 제목이 되는 형식이지요. 우리 시사에 처음 보는 구성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들 하더군요.

시집은 충(忠), 사(思), 한(汗)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1부에서는 「조국과 겨레 앞에 선 그대」로 자유 수호의 의지가 담긴 동적인 결의를 표현하고, 제2부에서는 「넋두리 속에 핀 꿈의 나라」로 예지 속에 느껴지는 서정적 감성들이 담긴 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며, 제3부에서는 「소중한 삶의 교훈들」로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 가고 있는 현 세태에 대해 정서적 순화를 위한 인격도야 측면에서 삶의 교훈이 담긴 지극히 평범한 주변의 이야기들을 새로운 기법으로 분류하여 엮어 보았습니다. 제 시작(詩作) 전편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것도 공군이지요.

공군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항상 공군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에는 우리 공군을 위해

하늘에 대한 예찬시를 보다

활발하게 창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호국정신과 조국애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자신에 대한 끝없는 성찰과 전우애라고 생각합니다.

전역 후 계획은?

미흡한 제가 부족하나마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무난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동료 장병들의 덕분입니다.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것도 공군이지요. 공군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항상 공군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에는 우리 공군을 위해 하늘에 대한 예찬시를 보다 활발하게 창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땅 곳곳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는 역사적인 전적지를 찾아 격전에 얹힌 사연을 시로 표현해 보고 싶은 욕심도 큼니다. 비록 이제 정든 군복을 벗게 되지만 앞으로 계속 국방일보나 월간 공군지 등 군내 매체에 투고 활동을 하면서 현역 장병들과의 유대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군인의 삶은 오직 조국을 위하는데 있음을 시로써 보여준 강상을 준위. 조국 영공 수호의 의미를 공군 장병들에게 심어 주었던 그의 시들이 더욱 풍성한 결실로 우리 곁에 다가서기를 기대해 본다. ㉠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입선한 홍성우 소령

대담 · 정리/방공포병사령부 중위 한 승 한

군생활을 하면서 자기계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목표를 세워 자기계발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예를 택했지만 무엇이든 좋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흐트러질 때마다

자기 자신을 다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역 공군 장교로서 제13회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입선하여 화제가 되었던 공군 방공포병사령부 홍성우 소령. 홍소령을 만나 그의 인생관과 예술관,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근황은? 아울러 말고 계신 임무도 함께 소개해 주신다면?

현재 방공포병사령부 계획처에서 계획장교 직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일선 포대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항상 그렇지만 새로운 임지에서 또 다른 보직을 맡게 된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되는 심정입니다.

서예에 처음 입문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대학교 1학년때 동아리활동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동아리 소개 벽보를 보고 동아리 방문을 두드렸는데, 그 곳에 있던 여학생들이 '체육교육과' 학생이라고 하니까 자꾸 웃더군요. 제 얼굴이나 전공이 서예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봅니다(웃음).

입문하신 후 주로 어떤 분께 사사하셨습니까?

처음 입문했을 때 산민 이용 선생님께 배웠고, 그 후 여러 선생님들께 사사하고 지금은 전주에 계신 호암 윤점룡 선생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다보니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지만, 평소에 쓴 글씨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다시 우편으로 가르침을 받는 식으로 지도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스스로 제 자랑하는 것 같아 좀 쑥스럽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수련한 결과를 평가받아 본다는 느낌으로 1992년부터 군내 대회에 몇 점 출품해 봤습니다.

공군 창작전에서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입선, 95년 특선, 96년과 2000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외 대회에는 스승님의 권유에 따라 99년부터 울산시전, 전라북도전, 화성서예대전에 출품하여 3년 연속 입선, 3체장(예서, 행서, 전서) 2회 수상 등을 하였고, 이번에 국전(제13회 대한민국 서예대전)에 출품하여 분에 넘치는 상을 받았습니다.

체력유지에 남다른 비결이 있다면?

별다른 비결은 없고 다만 시간을 아껴 쓰고자 노력합니다. 아침 5시쯤 일어나서 한 시간 정도 먹을 갈고 글씨를 씁니다. 다시 한 시간 정도 관사 주변 조깅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 매일 아침 그런 식으로 10km, 20km씩 번갈아 가며 뛰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가끔씩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흐트러지지 않으려 스스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끝으로 군생활 중 서예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서예를 통해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글씨를 쓰는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저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지휘관이자 참모로서, 상관과 부하 사이에서 원만한 군생활과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신에 대한 통제와 절제에 서예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겠습니까만 세상일이 모두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군 생활을 하면서 자기계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목표를 세워 자기계발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예를 택했지만 무엇이든 좋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흐트러질 때마다 자기 자신을 다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짧은 시야로 계획을 짜고 추진하다 보면 금방 힘이 들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마치고 홍성우 소령이 쓴 글씨를 곰곰이 바라 보았다. 글씨가 사람을 닮아 가는지, 아니면 사람이 글씨를 닮아 가는지 담담한 묵향과 함께 선 굵은 그의 얼굴에서 강직한 선비의 기운이 느껴졌다. ④

서예 말고 다른 취미 활동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배웠던 테니스와 비행단 포대장 시절 익힌 골프를 시간 날 때 즐기고 있습니다. 또 달리기를 좋아해서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계룡대 단축 마라톤대회에도 출전했었는데 상은 못 받았습니다. 6등으로 들어 왔는데 5등까지만 상을 주더군요 (웃음).

F-X 50문 50답(1)

공군본부 전력계획처

F-X 사업이란?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사업은 “21세기에 대비한 자주적 방위역량의 기반 구축”이라는 국군의 방위력 개선목표에 따라 국가방위의 핵심 전력으로서의 억제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F-X는 북한의 위협 대비는 물론 21세기의 불확실한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하에서 최소한의 대주변국 거부적 억제력을 구비(Equipment)하고 2000년대 초 도태 예정인 노후 전투기를 보충(Replacement)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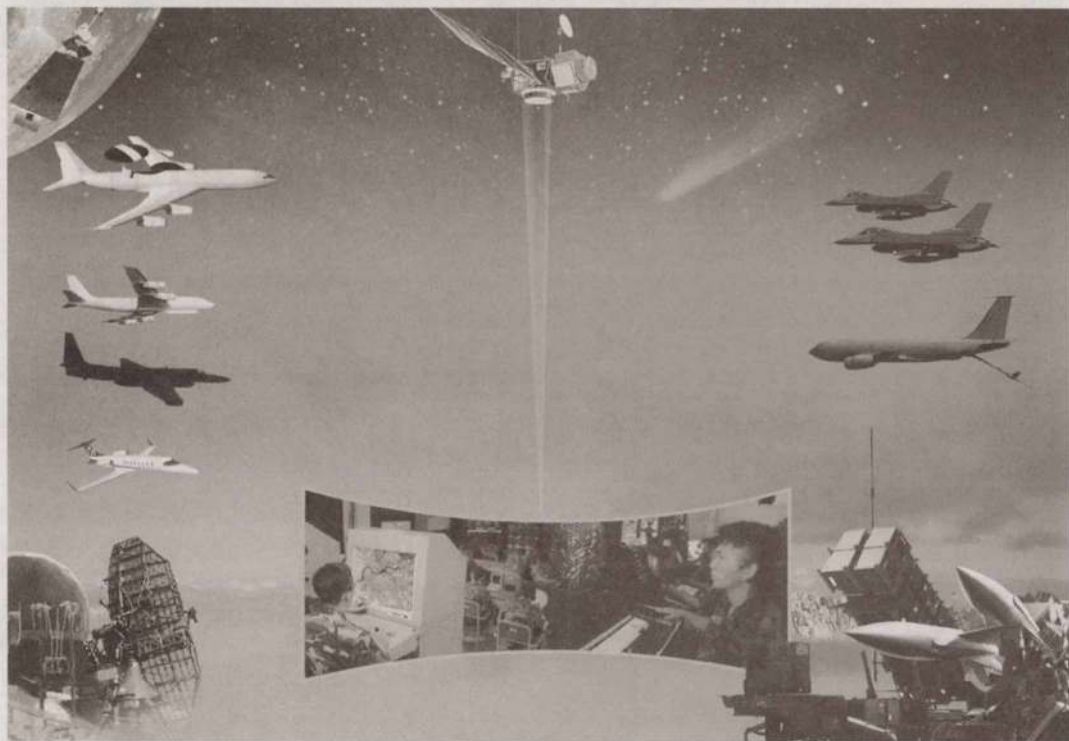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F-X 사업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4조 295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예 전투기 40대를 우선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4개 대상기종(EF-Typhoon, F-15K, Rafale, Su-35)에 대한 시험평가 후 2단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9월에 기종결정, 10월에 집행승인건의 및 상부제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왜 F-X 항공기가 필요한가?

F-X 사업은 북한과 주변의 불특정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평시에는 전쟁억제의 핵심수단으로, 갈등상황 전개시에는 국가의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전시에는 전쟁승리를 위한 결정적 수단으로서 요구되는 전략적 능력을 갖춘 핵심적인 항공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북한은 수적으로 우세한 재래식 무기와 화생방 등 대량살상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바, 유사시 북한 군사지휘체계의 신경조직을 마비시키고 대량 살상무기의 근원지를 파괴하여 신속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표적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히 파괴할 수 있는 첨단 전투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변국들은 전 세계적으로 국력과 군사력 면에서 가장 강한 국가들이며 우리가 이들과 대등한 군사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사시 적의 중심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F-X 항공기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성능의 항공기가 될 것이며, 21세기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도 굳이 많은 돈을 들여 F-X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21세기 우리의 안보환경은 북한의 당면한

위협뿐 아니라 주변의 불특정 위협까지를 대비해야 하는 이중적 구도의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의 위협보다는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독도문제, 남방항로 및 환경문제 등 주변강국과 갈등의 소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일관된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군사적 긴장상태가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내부여건이 폐쇄와 개방의 부조화에 의한 극한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코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할 상황은 아닙니다.

F-X 사업은 잔존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확실히 억제하고 주변의 불특정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핵심전력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중적 구도의 전략환경 속에서 국가의 지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이제 하늘을 보면 가슴이 설레인다

경상대학교 미술교육과 강은경

평소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군부대를 들어가 볼 수 있다는 호기심에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게 된 공군 제3훈련비행단의 모형항공기대회. 우리 경상대 미술교육과 학생들은 모형항공기대회 이벤트 중 하나인 얼굴 페인팅을 부탁받고 공군부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난생 처음 군부대를 방문한다는 설레임과 혹시나 늦으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다. 평소 군부대 정문에 늘 무뚝뚝한 표정과 딱딱한 모습으로 있는 헌병에 대한 인상과 높은 담의 철조망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리감으로 느껴졌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절도있는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 부드럽고 밝은 표정의 공군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고 있었다.

혹시나 이 모형항공기대회가 참가학생들의 과열된 경쟁 가운데 진행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얼굴 페인팅에 별 호응이 없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부대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행사를 보면서 이번 행사는 대회이기에 앞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라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

KT-1이라고 하는 훈련기의 비행시범과 공군 군악대의 멋진 연주, 그리고 의장대의 화려한 의장시범 등 한눈팔새 없었던 흥미진진한 이벤트들도 있었다.

국군의 날에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군악시범과 의장시범을 처음으로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그들의 절도있고, 웅장한 모습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아이들의 얼굴 페인팅에 대한 호응덕

분에 우리는 동심 어린 맑은 눈망울들을 바라보면서 한쪽 볼에는 자연을, 한쪽 볼에는 공군의 '하늘이와 푸르메'를 정성스럽게 그릴 수 있었다. 해광학교에서 휠체어를 타고온 지체장애아동들이 수줍어 하며 다가왔을 때는 가슴이 몽클해지기도 했지만, 보통 아이들과 똑같이 참가 선수로 출전하여 당당히 동상을 차지했다는 한 지체장애 아이의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며, 불편한 몸이지만 오늘 자신의 비행기를 힘껏 날려 보려는 희망의 날갯짓을 엿볼 수 있었다. 오늘은 이들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감동스러운 날로, 또한 군과 시민, 군과 어린이들이 하나가 되는 의미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훌륭한 시범과 다채로운 행사가 많았던 모형항공기대회는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진정 따뜻한 봄날의 축제였기에 딱딱하게만 느껴왔던 공군 부대 앞을 지나더라도 그 속에는 늘 국민과 함께 숨쉬고,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는 국민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에 흐뭇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푸른 공군 제복을 볼 때면 즐겁고 가슴이 설레인다. 그렇게 공군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 같다. ㊦



수송기 타고 본선대회로

제주 서호초등학교 꿈초롱반 강혜진



정말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주대학에서 열리는 모형항공기대회 제주예선에서 동상을 받을 줄이야...

난 역시 운이 좋아! 하하~

하지만 결코 운만 있었던 건 아니다. 새벽잠 많기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내가 스스로 놀랄 정도로 아침 연습을 해 왔던 것이다. 수업시간에 많이 즐기는 했지만...

그리고 공군사관학교에서 있었던 본선대회. 서귀포에서 제주공항까지, 그리고 돈을 주고도 못 타는 공군비행기를 타고 청주로~.

수송기라서 그런지 소음이 너무 커서 귀가 너무너무 아팠다. 프로펠러가 양쪽에서 돌아가니 그럴 만도 하지. 하지만 비장의 무기인 귀마개가 소음을 줄여 주었다. 처음 시작부터 재미있었다. 비행기가 금방 하늘로 오르고 비행 중에는 오르락내리락, 마치 내가 날리는 글라이더를 타는 기분이었다.

오늘 내가 날리는 글라이더도 수송기처럼

잘 날아야 할 텐데...

몇 시간 후 공군사관학교 도착! 공군사관학교 운동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연습삼아 날리는 글라이더와 고무동력기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러면 안되지. 나도 연습이다!

나는 글라이더 1부 15조 6번이었다. 두 차례의 비행에서 1차 40초, 2차 48초로 나는 입선을 받았다.

본선대회는 역시 다르다. 제주예선에서는 15초로 동상을 받았는데 본선에서는 48초 기록으로 입선이라니... 내년에는 경쟁이 더 치열하겠지?

다음에는 더 잘 날릴 수 있도록 우정단에 가입해서 더 많이 배워야겠다.

지도해 주신 나중창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는 그 동안 못했던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럼 공군 오빠, 언니들 안녕. ☺

밀레와 공군

단국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강 승 주**

한 폭의 그림이 선사한 놀라운 힘

19세기 초 전원주의의 대표화가인 밀레가 임종하기 직전에 한 말이 있다. “난 아직 노동을 더 해야 하는데...” 그의 마지막 숨소리와 함께 작은 목소리로 사그러 들었을 이 한 마디에서, 나는 노동의 숭고함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화폭 가득 담아낸 밀레의 ‘만종’을 머리 속에 그려본다.

당시 서부 개척시대였던 미국은 밀레의 ‘만종’을 대량으로 복제해 각 가정에 보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근면이라는 근대적 계몽정신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니 그림 한 장의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땅거미가 지는 황혼의 들녘, 저 멀리 보이는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젊은 두 부부가 경건한 모습으로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만종’은 언제 보아도 참으로 인상적이다. 종교적 휴머니즘이 가득한 이 그림 한 장으로 오늘날 미국이라는 국가의 모든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과 악이 난무하던 신대륙, 남북전쟁의 혼미함으로 소용돌이치던 미국에서 밀레의 ‘만종’이 상처받은 개인과 사회를 회복시키고 미국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군이 그려내는 또 다른 그림

공군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도 한 폭의 그림이 가져다 주는 감동과 비견할 만하다. 게다가 고공의 하늘과 산간오지를 캔버스 삼아 펼쳐지는 그림은 넓은 하늘

만큼이나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준다.

몸이 불편하신 수녀님을 위해 군 수송기를 선뜻 내주는 아름다움.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는 희생과 용기. 매마른 농토에 한 줄기 물을 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린 병사들.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날린 모형비행기만큼이나 자유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공군.

밀레는 자신의 예술적 빛을 육체적 노동의 숭고함과 따뜻한 인간애에서 찾고 있다. 나 역시 한 사람의 예술가이자 미술교육가로서 축축한 기름으로 부드러워진 유화를 통해 속악한 세상에 한 가닥 예술의 빛을 던지고 싶어진다.

하지만 나는 가끔 신문기사 한 토막을 장식하는 작은 이야기들 속에 붓으로 그릴 수 없는 감동이 있다는 것을 안다. 공군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계속해서 기대해 본다. 사회의 든든한 밑그림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



엽기적인 그녀

영화배우 전 지 현

우선 공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현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공군 장병 여러분은 안계시겠지요. 제가 81년생이니까 아마도 제 또래거나 오빠들이 되겠네요. 혹시나 동생들도 있겠군요. 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공군의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랄까요... 빠른 속도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마치 제가 등장하는 CF처럼 말이지요.

자신의 프로필을 잠시만 소개해 주십시오.

패션잡지 '에콜' 모델로 활동하다 CF모델을 거쳐 SBS 드라마 '내마음을 뺏어봐'와 '해피투게더'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화로는 '화이트 발렌타인'과 '시월애'를 찍었구요, 지금은 태현 오빠와 '엽기적인 그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춤만 잘 추는 게 아니지요.(웃음) 동국대 연극영상학부 2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바쁘네요. 별명은 제가 뭐든지 잘먹어서 그런지 '밥순이', 하도 털털해서 '왕털털이'예요.

'엽기적인 그녀'에 등장하는 '엽기녀'가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하는지.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연기는 연기고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공군은 공군이고 육군은 육군, 해군은 해군 아닌가요.(웃음) 주위 사람들로부터 종종 유니폼이나 제복이 어울릴 거라는 얘기를 듣곤 해요. TV에서 '에어포스'를 봤는데 파란 제복에 빛나는 계급



장이 얼마나 멋있던지... 전투기타고 신나게 한 번 날아 봤으면 싶더라구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전투기조종사 역할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봤으면 하네요. 취사병 역할도 괜찮아요. 제 특기가 음식하기거든요.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CF 때문에 제가 테크노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조용한 음악을 좋아해요. 테크노음악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가끔. 영화는 '러브레터'와 '비트'를 좋아해요. 제가 출연했던 '시월애'가 '러브레터'라면 '엽기적인 그녀'는 '엽기적인 비트'겠지요.

마지막으로 공군 장병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공군 캐릭터 '하늘이'와 '푸르메'를 오늘 처음 봤는데 당차면서 귀여운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마도 공군 장병 여러분들도 '하늘이'와 '푸르메'처럼 씩씩하면서도 멋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친구, 오빠, 동생 여러분 군생활 열심히 하세요. 언젠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군인 역할을 맡게 된다면 공군 조종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ㄹ



‘2001 서울 국제도서전’을 다녀와서 ‘책맹(冊盲)’ 없는 사회를 위한 한판 잔치

『오늘의 책』 편집장 김 보 경

범죄 사회 못지 않게 위험한 사회가 ‘책을 읽지 않는 사회’라고 한다. 이 말은 사람들의 사고능력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에서 ‘책, 내일의 힘입니다’라는 케치프레이즈 아래 ‘2001 서울국제도서전’(이하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6월 1일에서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태평양관에서 열렸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우선 전시규모에서 국내 139개 출판사와 세계 23개국 177개 출판사가 참여하여 국제도서전으로서의 외형적 조건을 갖추었고 내용면에서도 ‘책으로 보는 우리 땅·답사, 여행, 지역문화’, ‘책으로 가는 북한’, ‘책마당, SBS 특집-책하고 놀자’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책잔치’에 걸맞은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출판물 한 자리에

그러나 예상에 비해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지는 않았다. 또한 인문사회과학 출판사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아동도서 출판사들이 주류를 이룬 탓에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즐길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독일, 일본, 프랑스, 리비아 등 많은 외국 출판물들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었으며 국내의 모든 정기출판물들을 모은 ‘잡지 부스’, 책 디자인을 또 다른 예술로 만드는 ‘디자인 부스’, 세계의 다양한 공간들을 모아 놓은 ‘지도 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속속 숨어 있었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의 특별전시 코너에서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바로 ‘북한 도서전’이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화해분위기를 반영하듯 북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모아지면서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전시전이었다. 하지만 ‘북한 도서전’이 여러 출판사나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북한 도서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한 인터넷 서점에서 기획한 것이었기 때문에 책의 수량과 종류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에는 접하기 힘들었던 북한의 도서들을 직접 열람하고 구입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국제도서전으로서의 이번 전시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전시된 북한 도서들은 의학, 역사, 문학, 문예, 지리, 언어, 민속, 동식물 등에 관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특히 사전과 법률책, 언어학 관련 서적 그리고 고려의학, 침뜸치료 등과 같은 의학 관련 책들이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문학도서들의 경우 현대 문학이 아닌 북한에서 고전문학으로 추천하는 ‘춘향전’, ‘토끼전’, ‘김만중 작품집’, ‘박지원 작품집’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또한 ‘팔만대장경해제’나 ‘리조실록’과 같이 우리보다 먼저 한글화되고 연구된 저작들도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그 중 가장 사람들이 흥미롭게 대했던 책들은 보다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책들이



었는데, '요리책'과 같은 가사 관련 책과 '조선화 그리기', '어린이 피아노 교습본'과 같은 책들이었다. 특히 '어린이 피아노 교습본'은 젊은 참가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 책은 북한 어린이들의 피아노 교습책으로 이 책 안에 실린 곡들은 동요이긴 하나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동요들과 달리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었다.

미래의 책, 미리 본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전자책'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접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전자책', 'e-book'이 낯설고 여기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지만 당장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전자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전자책 출판사들이 참여해, 직접 컴퓨터로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보고 듣는 음성 전자책도 선보였는데, 이 책은 MP3 형태로 도서를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 MP3 플레이어를 통해 책을 들을 수 있어 앞으로 어린이들, 시각장애인들에게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 읽는 사회를 만듭시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가장 의미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모두 4백여 개. 일본이 우리나라의 여섯 배, 독일은 열 다섯 배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

학가 앞에 찾아볼 거라고는 유흥업소들 뿐 그 흔한 서점 하나 없고, 사람들이 점점 더 책을 멀리하는 사회가 되어간다는 개탄의 목소리는 높지만 주민 11만 5천 명에 공공도서관 하나라는 수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도서산업'의 기본적인 바탕도 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 400개 도서관의 1년 책 구입예산 200억원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서관의 1년 도서관구입비 27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문학의 위기와 도서업계의 쇠락을 염려하면서 개개인의 자질을 운운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디서든 책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출판사들이 베스트셀러 만들기처럼 상업적 성공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양질의 책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나 지역 도서관의 활성화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사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지금에도 '책'이란 어떤 형태로든 인류의 중요한 지적 자산의 결집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비록 행사장에서는 그리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번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이야말로 국민적 캠페인으로서 지속되어야 할 운동일 것이다.

오래되고 구하기 힘든 책들을 많이 볼 수 없었다는 점, 각 출판사의 특색 있는 기획이나 저자 강연회 등이 거의 없어 도서출판업계의 현장성이 떨어졌다는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팔기 위한 도서전이 아니라 읽고 싶고, 읽게 하기 위한 도서전이었다는 의미를 간직하고 이번 '2001 서울 국제도서전'은 막을 내렸다. (주)



문화의 전승과 새로운 창조,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편집실

경주는 찬란한 신라의 유적이 불교문화와 함께 살아 숨쉬는 곳으로 가는 곳마다 선인들의 정취가 남아 있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음미해 볼수록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곳이다. 더욱이 1998년에 첫 출발을 한 후 새로운 문화의 보금자리로 자리잡고 있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지난 3월부터 문화테마공원으로 상시개장을 하고 있어 그야말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향연을 연출하고 있다.

세계 속에 한국문화의 위상 확립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는 유·불·선의 원류이자 찬란한 전통유산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경주에서 인간의 참된 가치를 조명해 보고 다가오는 문화의 21세기를 선점하여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간다는 취지 아래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의 진수와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비교해 보고 세계 속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위 경관이 빼어난 보문단지 내 15만평의 부지 위에 영상·전시·공연이라는 3가지 테마를 잡아 다양한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1998년 304만명, 2000년 175만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3년 세 번째 행사를 앞두고 그 동안 축적된 인프라와 경험을 바탕

으로 문화테마 공원인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공원'을 개장하게 된 것이다.

문화, 21세기의 아이콘

지구상에는 180여 개의 국가가 존재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8,000가지 정도의 이질적인 유형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하버드대학의 사무엘 헌팅턴 교수는 그의 저서 『문명의 충돌』에서 "신시대에 있어서 분쟁은 지금까지 이데올로기나 경제를 에워싼 대립과는 달리 문화적 요소에서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정치원리나 경제원리가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지만 앞으로는 문명과 문화의 패러다임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의 종언』에서 사회주의의 멸망을 예언했던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신퇴』라는 또 다른 저서에서 문화가 국가의 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헌팅턴과 후쿠야마가 그려내는 앞으로의 세계구도는 모두 문화적 힘을 기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문화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다른 엑스포와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전통과 첨단 만남

특히 2000년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기법의 첨단 컴퓨터 영상)은 한국과 학기술원(KIST)과 공동으로 개발한 작품으로 651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세계최대의 가상현실극장에서 신라문화의 우수성을 재현해 볼 수 있는 '서라벌의 숨결 속으로'를 상영하여 국내외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우리의 '바리데기' 설화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이 만나 상생하는 총체극 '우루왕'이 신라의 옛 궁궐터 반월성에서 화려하게 펼쳐졌고 신라의 고승 월명대사와 유럽의 철학자 짜라투스트라, 선무도와 테크노댄스가 새롭게 융합하는 '도술가-짜라투스트라'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공연되어 창작문화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

이외에도 아시아·유럽공연 예술축제, 아시아·유럽포럼, 유럽영화제, 국제청년문화캠프, 세계구족화가전, 아시아·유럽 청년작가 그림전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경주, 새로운 문화적 지형

지난 3월 말부터 문을 연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공원'은 2000년 행사시의 VR영상, 전시, 공연 등 10여 개 테마를 새롭게 보완하고 뮤지컬, 연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종합극장인 '화랑극장'을 개장하여 경주를 찾아오



는 국내외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엑스포 행사장을 찾은 프랑스의 문화비평가 기 소르망은 찬란했던 신라 문화를 다룬 주제전시를 관람한 후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문화의 도시 경주와 함께 21세기를 선도하는 문화 창조의 현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새로운 문화를 상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그려낼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공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상시개장되며, 경주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4)

자가용 타던 날

방송작가 김 은 희

A의 오빠네는 자가용이 두 대다. 오빠는 검은색 그랜저에 올케언니는 황금색 마티즈. 형부가 말단 공무원인 큰언니네는 자가용이 한 대.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중요한 건 폐차 직전의 고물차라는 사실이다. 시댁이 좀 부자인 둘째 언니네는 자가용이 두 대. 작은 형부는 녹색의 커다란 카니발, 언니는 빨간색의 쪼끄만 티코. 이렇게 해서 A네 가족의 차는 모두 다섯 대다.

앗, 잠깐! 중요한 걸 빼먹어선 안되지. 자가용 소유 경력으로 치자면 뭐니뭐니해도 그녀의 아버지가 최고니까. 자가용을 바꾼 것만도 이번이 다섯 번째지, 아마. 차의 수명이 짧았나, 아니면 그녀의 아버지가 그만큼 차에 욕심내도 좋을 만큼 부자인가?

아니, 순전히 도둑을 맞아서다.

앵? ‘차도둑’이라구? 그것도 네 번씩이나? 그게 가능해?

물론, 가능하고 말고!

A의 아버지의 자가용은 바로 ‘중고 오토바이’니까.

A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가뜩이나 허약체질에 예민한 성격이었던 그녀, 매일 아침 버스로 통학하기 무척 힘들어 했으랬다. 결국 버스 타느니 학교까지 네 정거장을 걸어갔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서던 A에게 아무 설명 없이 집

앞에 서있는 검은색 승용차에 타라고 하셨다. 바로 옆 건물의 주인 딸이 바로 A의 학교 선배(게다가 주인 아저씨는 아버지의 동네친구이기도 했다), 그 언니가 매일 등하교를 하던 기사 딸린 근사한 자가용. 그냥, 그 언니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차를 타고 있으면 된다는 아버지 앞에서, A는 싫었지만 그냥 차에 올라탔다.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잠시 후 그 언니가 오길래 문을 열고 내려 “안녕하세요?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으며 인사를 했는데 그 언니, A의 인사 따위엔 시선도 안주고 뒷좌석에 오르더니 문을 쾅, 닫는다.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해 하다가 뒤돌아본 그녀의 시선에 잡힌 아버지의 표정. A는 조용히 앞좌석에 올라 학교까지 말없이 갔다. 생전 처음 타보는 자가용이었다.

그러나 분에 겨운 그 자가용 등고는 겨우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아버지는 괜찮으니 그냥 걸어가겠다는 A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셨지, 아마.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그녀의 아버지에게도 자가용이 생겼다. 겨우 오십만 원이나 됐던가... 낡고 덜컹거리던 아버지의 자가용.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가용으로 매일 아침 A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겠다는 거다. 아... 등교 시간에 맞춰 막 깨어난 부시시한 모습으로



낡은 츠리닝을 걸치고, 전혀 근사하지 않은 오토바이에 앉아 시동을 걸고 계시던 아버지. 결정적이었던 건, 학교 근처 담벼락 아래 내려달라던 A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부득부득 학교 교문 앞에서야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등교 지도를 하고 계시던 선생님에게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레 인사까지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그녀는 매일 아침 고개를 꼭 숙인 채 교실까지 땅만 쳐다보며 걸어가야 했다.

아버지는 그녀가 아버지를, 아니 아버지의 낡은 자가용을 창피해 했다는 사실을 혹 알고 계셨을까.

두 번의 명절을 지나쳤으니 1년 몇 개월 만인가, 그녀는 며칠 전 집에 다녀왔다. 그리고 대학시절 이후 집에 올 때마다 가장 행복한 시간, 새벽을 맞았다. 바로 아버지의 자가용을 타고 그 도시에서 제일 큰 시장까지 가는 시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시장 한바퀴를 도는 시간. 그날도 아버지의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 시장까지 달리는데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졌다.

그리고 사람들...

채소 몇 개 들고 '사세요' 소리도 못하고

앉아 계시던 할머니, 촌스럽고 질나쁜 옷가지들을 가득 쌓아놓고 소리지르는 청년, 고등어 한 마리를 두고 소리 높여 흥정을 하던 주인 아저씨와 젊은 여자, 꼬꼬댁거리는 닭 뒤를 뒹뒹따라 걷던 꼬마, 그들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 돌려 쳐다보느라고 여러 번 시야에서 아버지를 놓쳐야 했던 사람들의 풍경. 그렇게 아버지 따라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찰옥수수랑 꽃게랑 참외를 샀다.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 돌아오는 길, 갑자기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어느새 7시가 넘은 시각, 늘어난 차 사이로 타타타타... 오토바이를 모는 아버지의 등이 따뜻하다. 그리고 얼굴에 때리는 빗줄기가 썩 기분 좋다.

그녀는 지금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질러댔다. "야호!"

그런데 아버지도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닌가. "아빠도 야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록, 주룩주룩 비를 맞고 달리던 아버지와 그녀는 계속 환호성을 질러댔다. "야호!" "야호!"

그녀는 오랜만에 평화로웠고... 그리고 행복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삶이 괴로워서..."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의 기분을 조금 나누어 주고 싶을 만큼. ①

여유, 그리고 멋

군수사령부 중령 이 면 우

찌는 듯한 철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농심(農心)을 애태우고 있다. 시원하게 비라도 한줄기 내려 타는 대지를 적셔 주었으면 좋으련만... 한 방울의 물이라도 끌어다 메말라 가는 농토를 적셔 주고자 사투를 벌이는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자연의 매정함을 원망도 해 본다. 그러나 천심(天心)의 농부들은 자연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하늘의 뜻에 맡기며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지혜가 있다.

그렇다. 자연이 아무리 심술을 부려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저 순응하며, 잡초같은 생명력으로 동화되어 살아가는 우리네 아버지들의 여유있는 마음이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너무 비약적인 생각일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처럼 이상기온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비가 내려야 할 시기임에도 불별 더위가 내리쬐는 자연재해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순박한 농부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고 사람을 경시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무지한 행동을 하고서도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그런 부류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세상이니 하늘인들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저질적 행동에 대한 당연한 죄과인지도 모른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답게 행동하며 사람으로 태어난 인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자연을 두려



워할 줄 알며,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 하늘은 그 노기를 풀고 천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는가?

대자연의 위대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순리에 역행하지 않고 묵묵하게 인내할 줄 아는 우리네 시골 아버지들의 삶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쁘고 힘든 일상일지라도 양보하는 마음, 포용할 줄 아는 마음, 나 보다는 상대방을 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무덤고 짜증나는 이 여름을 여유있고 멋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태산은 작은 흙덩이도 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이루고,

하해는 작은 물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깊음을 이루며,

임금은 백성들을 물리치지 않기 때문에 그 덕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泰山은 不讓土壤이라 故로 能成大하고 河海는 不擇細流라 故로 能就其深하며, 王者는 不卻衆庶라 故로 能明其德이니이다.”

이 글은 진시황(秦始皇)이 통일에 공이 있는 제후(諸侯)들을 축출하려 할 때 진나라의 승상(丞相)을 지낸 이사(李斯)가 간(諫)하여 올린 글이다. 이 글에 담겨져 있는 속뜻을 헤아리지 않더라도 양보할 줄 모르고 포용할 줄 모르며,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글임에 분명하다.⬇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는 사람

우 표

□□□ - □□□

받는 사람

□□□ - □□□

공군지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집이나 공군에 바라는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독 자 엽 서

공군내
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보내는 사람

이 름

소속(주소)

전화번호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월간 공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Tℙ 6231-7, (02)506-6231-7

지구 온난화 현상

공군본부 환경과

지구 온난화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탄, 오존, 아산화질소, 수증기 등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온실효과에 의해 지구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에는 난방이나 동력을 얻기 위해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탄산가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물질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50%에 이르며, 다음은 프레온이 20%를 차지하고, 메탄이 16%, 나머지 오존과 아산화질소가 각각 8%와 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온실키체는 산업 혁명 이후 석탄, 석유의 사용 증가와 함께 과학문명의 산물인 냉장고,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프레온 같은 인공 합성물질이 대량으로 쓰이면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존의 농업과 목축산업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메탄 역시 온실키체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극지방의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최소 10cm에서 최대 2m까지 상승하여 낮은 곳에 있는 도시와 섬들이 침수하고, 농경지 감소, 해안선의 변화 등이 일어나 수자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온도상승으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병충해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 수확이 줄어들게 된다. 이외에도 강수량과 수분 증발량을 변화시켜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되며 생태계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가 100년간 지속되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25℃에서 55℃ 정도 상승하게 되고 해수면이 0.5m에서 최고 2m까지 높아져 적어도 10억명 이상의 환경 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상에서의 작은 노력도 큰 힘이 됩니다.

- ▷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과적·급가속·급발진 등을 하지 맙시다.
- ▷ 냉장고, 에어컨 등을 적정한 온도로 사용하여 프레온 가스의 사용을 줄입니다.
- ▷ 헤어스프레이, 면도용포말, 소화기 등을 사용할 때는 설명서의 사용방법을 꼭 지키고 용기를 함부로 해체하지 맙시다.
- ▷ 분사식 페인트, 해충약 등을 쓰지 맙시다. ⚠





호적에 빨간 줄(Ⅱ)

Q 저는 1985년 폭행죄로 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직시험에 응시하여 여러 차례 면접에서 탈락된 경험이 있는데 벌금형 받은 전과가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철없던 시절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현재까지 이렇게 큰 영향이 있다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전과를 말소할 방법은 없는지요?

A 전과사실은 수사자료표, 수형인명부, 수형이명표에 기록되며 이를 전과기록이라고 합니다. 수사자료표는 경찰에서, 수형인명표는 검찰청에서, 수형인명부는 본적지에서 관리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본적지에서 발급하는 신원증명서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될 때까지 전과사실이 기재됩니다.

일단 전과사실이 있으면 수사단계에서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수사에 참고하므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될 수도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단, 이 경우 벌금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한 기간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말소하여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자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

과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재판으로 전과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이러한 신청절차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일정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과를 실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집행유예 판결이나 선고유예 판결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전과기록이 삭제되고, 대통령은 일반사면을 통하여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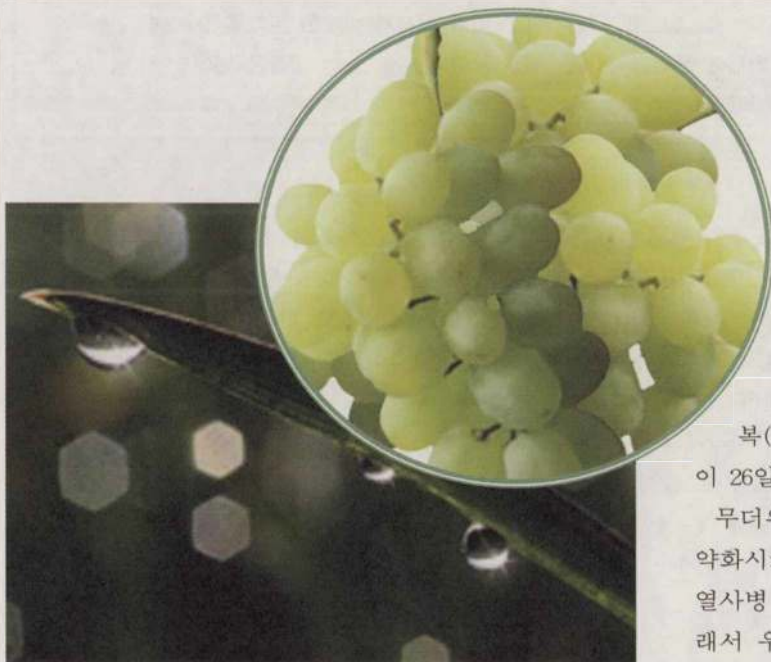
그러나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과기록 말소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전과기록 말소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과가 말소되더라도 경찰의 수사자료표에는 전과기록이 계속 남아 있으며, 검찰에서도 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수사자료표의 전과기록을 확인하여 수사에 참고하게 됩니다.

다만 벌금형 전과의 경우 수형인명표에는 1980년 12월 18일부터, 수형인명부에는 1984년 9월 1일부터 기재하지 않게 되었고, 신원증명서는 본적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를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벌금형 전과나 실효된 전과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수사자료표의 전과기록은 수사, 공무원 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는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포도가 익어 가는 7월에

73기상전대 중령 염영경



큰 더위라는 대서(大暑)가 23일이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初伏)이 16일, 중복(中伏)이 26일이다.

무더위는 사람들의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각종 식중독이나, 이질, 열사병 등에 취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 복날이면 토종닭에 인삼

장마로 많은 비가 대지를 적시고 폭염이 내리찍는 7월이면 감칠맛 나는 여름 과일들이 탐스럽게 익어간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이육사의 시) 아직 채 익기도 전인 신 포도알을 몰래 따먹다가 된통 혼나곤 했던 옛날이 자꾸 그리워지는 건 웬일일까?

7월이라 여름(季夏)되니 소서(小暑) 대서(大暑) 절기로다/큰비(大雨)도 내리고 더위도 극심하며/초목이 무성하니 파리 모기 모여들고' 월령가의 노래가 아니더라도 7월은 더위와 장마가 함께 찾아오면서 파리 모기가 기승을 부릴 때이다.

올해는 작은 더위라는 소서(小暑)가 7일,

과 대추를 넣어 만든 삼계탕을 시절 음식으로 먹었나 보다. 또 최근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도 말라리아 모기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니 '더위 조심, 모기 조심'은 장병에겐 필수적이다.

7월의 고온다습한 기상상태는 불쾌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작업능률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짜증을 쉽게 내게 만든다. 또 생체기상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런 기상조건에서 폭력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이래저래 감독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달이다.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고 사랑해보자. 이런 것이 아마도 덥고도 습기 찬 7월을 활기차게 보내게 만드는 청량제가 되지 않을까? (♣)

김승학(金承學)



"우리의 독립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며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나라들이 속속 독립을 선포하는 차제에 우리만이 계속 피압박 상태 속에 놓여 있음은 언어도단이다. 속히 대한의 독립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민족정기 양양을 위해 헌신

김승학은 1881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다. 24세 이후 상경하여 한성고등사범학교에 입학, 신학문을 익혔다. 1907년 정미(丁未)조약 체결 때 서울 종로에서 반대연설을 하다가 평리원(平理院) 구치장에 3개월간 유치당하기도 하였다. 1910년 만주로 건너가 봉천 강무당(奉天講武堂)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의병투쟁에도 가담하였다. 1919년 음력 3월 15일 각계 각층 대표 560여 명이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에 모여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을 조직할 때 이에 참여하였다. 동시에 임시정부 평북독판부(平北督辦府) 국내 특파원으로 백의범(白義範)·백기준(白基俊)과 같이 국내에 들어와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 연통제(聯通制)를 조직하였고 88개소에 독립단 지단(支團)을 설치 운영하였다. 그는 민국독립단(民國獨立團)의 재무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20년 2월에는 임시정부 직할의 광복군사령부 군기국장으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였다.

세계 각국에 한국독립의 당위성 역설

1921년에는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사장이 되어 민족정기를 양양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는데 심혈을 경주하였다. 이때 그를 도운 독립지사는 안창호(安昌浩)·이영렬(李英烈)·신우현(申禹鉉)·장기초(張基礎) 등이었다. 또한 소련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혁명단체대표자 대회에 임시정부 군무부군단을 대표하여 참석하고 "우리의 독립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며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나라들이 속속 독립을 선포하는 차제에 우리만이 계속 피압박 상태 속에 놓여 있음은 언어도단이다. 속히 대한의 독립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각국 대표에게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었다. 이에 그곳에 참석한 수많은 대표가 한국의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통일하는 문제에 상당히 접근하였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1926년 임정의 명으로 육군주만 참의부의 참의장(參議府參議長)이 되어 참의부 재건 운동에 힘썼다. 그후 국민의회의 민사위원(民事委員)에 취임하고 한국독립당(위원장 홍진)의 최고 간부를 겸하게 되어 모든 진용을 구비하고 본영으로 귀대하던 도중에 통화현(通化縣)에 대기하고 있던 중·일 군경합동대의 기습공격을 받고 항거하다가 체포되었다. 그 뒤 신의주·평양 등 감옥으로 전전하며 옥고를 치르고 5년만인 1934년 3월에 출옥하였다. 그는 출옥한 뒤에도 독립운동을 위한 굳은 뜻을 굽히지 않고 북경(北京)을 거쳐 남지(南支) 방면을 왕래하면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다가 광복을 맞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이러한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하였다. 4

‘어부가’의 작가 농암(龔巖) 이현보



그는 생애에 네 번의 사화를 겪었다. 첫번째 무오사화(戊午士禍)는 그가 32세로 등과하던 해에 일어났으며, 두번째 사화인 갑자사화(甲子士禍)는 그가 38세로 춘추관 기사관으로 있을 때 일어났다. 세번째의 기묘사화(己卯士禍)는 그가 53세로 안동부사에 있을 때였으며 마지막으로 을미사화는 그의 나이 79세때였다. 갑자사화 당시 농암의 직언이 오히려 연산군의 노여움을 사 그는 안동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다.

농암 이현보는 세조 13년(1467) 7월 29일 안동 예안 분천리에서 태어나 명종 10년(1555)까지 활약했던 조선 중기의 인물이다. 조선시대에 자연을 노래한 대표적인 문인으로 국문학사상 강호시조의 작가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는 비중(斐仲), 호는 농암(龔巖), 본관은 영천이며, 익호는 효절공(孝節公)이다.

자연을 노래한 강호시조의 대표적 작가

농암은 날 때부터 재지(才智)가 뛰어나고 골상이 비상하였다. 성품이 호탕하여 구애됨이 없고 사냥하기를 좋아하여 학문에는 과히 전력하지 않다가 19세에 향교에 들어가 비로소 발분(發奮) 독서하여 크게 정진하였다. 농암은 29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32세에 관시(官試)에서 제일인자로 뽑혔으며, 연산군 4년(1498)에 처음 벼슬길에 나아가 권지교서관정자에 보하게 되었다. 그 뒤 영흥훈도, 성균관 전적 등을 거쳐 선교랑 수사간원정언으로 임명되었다. 그 때 직언(直言)을 서슴지 않아 안동의 안기역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다.

밀양도호부사, 충주목사, 안동부사, 성주목사 등의 지방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구부사, 평해군수 등을 거쳐 70세에 경상도 관찰사로 봉직했다. 실질적인 농암의 관직생활은 76세에 끝났으며, 83세 때에는 정헌대부, 숭정대부의 직(職)에 올랐다.

네 번의 사화(士禍)에도 굴하지 않은 충정

그는 생애에 네 번의 사화를 겪었다. 첫번째 무오사화(戊午士禍)는 그가 32세로 등과하던 해에 일어났으며, 두번째 사화인 갑자사화(甲子士禍)는 그가 38세로 춘추관기사관으로 있을 때 일어났다. 세번째의 기묘사화(己卯士禍)는 그가 53세로 안동부사에 있을 때였으며 마지막으로 을미사화는 그의 나이 79세때였다. 이러한 사화 중에서 그의 신변에 가장 가까이 일어난 것은 갑자사화(甲子士禍)였다. 그 당시 농암은 문과에 급제하여 직무를 의욕적으로 수행하려 하였으나, 그의 직언이 오히려 연산군의 노여움을 사 그는 안동의 안기역으로 정역(定役)되었던 것이다.

작품으로는 10장으로 전해지던 <어부가>를 장가 9장, 단가 5장으로 고쳐 지은 것이 『청구영언』에 전해지며 <효빈가>, <농암가>, <생일가> 등의 시조작품 8수도 전해진다. 저서로는 『농암문집』이 있다. 📖

육군 준장 김용배(金龍培)



횡성, 여주를 거쳐 남침한 북한군 제1사단은 탱크 8대를 앞세우고 무극리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에 매복 중이던 대대는 음성읍 가까이 접근한 적 1개 정찰소대를 포위, 완전히 섬멸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김용배 중령이 이끄는 대대는 7월 14일 문경전투를 시작으로 군위군 남방과 대구 동북방의 신령지구에서 격렬한 전투를 치르며 북진하기 시작하여 가평, 화천을 거쳐 평강, 양덕 방면으로 진격하였으며 10월 24일 희천을 점령한 다음 한만(韓滿) 국경의 초산까지 진출하였다.

매복작전으로 적 1개 소대 완전 섬멸

1921년 4월 17일 경상북도 문경 출생. 1950년 6·25 발발 당시 김용배 중령은 제7연대 제1대대 대대장으로 춘천 북방 지내리에 진출하여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북한군 탱크 앞에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용배 중령이 지휘하던 대대는 지연작전을 수행하면서 남하, 7월 4일에는 진천-무극리-충주 전선에 이르렀다. 이때 횡성, 여주를 거쳐 남침한 북한군 제1사단은 탱크 8대를 앞세우고 무극리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에 매복 중이던 대대는 음성읍 가까이 접근한 적 1개 정찰소대를 포위, 완전히 섬멸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다.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

이어 김용배 중령이 이끄는 대대는 7월 14일 문경전투를 시작으로 군위군 남방과 대구 동북방의 신령지구에서 격렬한 전투를 치르며 북진하기 시작하여 가평, 화천을 거쳐 평강, 양덕 방면으로 진격하였으며 10월 24일 희천을 점령한 다음 한만(韓滿) 국경의 초산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이 개입한 뒤에는 개천에서 평양 시변리를 거쳐 동두천-용인군 백암리 방면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을 저지하였다. 김용배 중령은 이러한 전공을 인정받아 1950년 12월 30일 을지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투혼

이듬해인 1951년 6월 12일에는 제7사단 제5연대장으로 승진한 후 633-731고지 점령의 임무를 부여받고 격전 끝에 적 전선의 일익을 탈취하는 전공을 올렸으나 7월 2일 양구군 북면 토평리지구 전투에서 중공군 5군단 1개 연대와 전투 중 적 포격에 의해 전사하였다.

김용배 대령은 1951년 10월 15일 태극무공훈장과 더불어 준장으로 추서되었다. ①

나에게 오라... 아니 공군으로 오라!

30방공관제단 31전대 일병 김 일 구

잘들 지내고 있지? 너희들이 걱정해준 덕분에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 이제 따뜻한 봄도 지나고 어느새 6월이구나. 군에 들어와서 처음 맞이하는 여름... 어떨까? 입대하자마자 훈련소에서 겨울을 보낸 나는 어렵지 않게 더위 또한 견디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서 누구나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지.

내가 입대한 지 벌써 7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구나. 하루하루 지낼수록 항공우주군으로서의 공군에 매력을 느끼면서 아직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너희들에게 한가지 길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든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나는 공군에 입대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해. 2년이 넘는 군생활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나 화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훈련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너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공군은 또 다른 친구야.

친구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공군과 함께 하는 것이 어때? 내가 생각하는 공군의 가장 큰 매력 중의 하나는 너희가 해오던 공부들, 특히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짧지 않은 군생활 동안 다른 군에 비해 전공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특기를 선택해서 화학이면 화학, 전산이면 전산 등 너희가 해오던 전공을 좀더 계발할 수 있고 실전에 응용할 수도 있어. 다시 말해 2년여의 시간을 좀더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전공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스스로 자기 가치를 키워 가는 거야. 군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은 자신뿐만 아니라 군과 사회를 위해 좀 더 값진 열매로 되돌아 오는 법이거든. 공군이라면 말이야, 더욱 향상된 자기 자신을 보는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어.

그러다 보니 공군에는 사회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내가 공군에 있는 걸 봐도 알잖아... ^^; 공군에 있다보면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우수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 공군 제대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 긴 시간 같이 한술밥을 먹으며 생활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무척 도움이 되었다고 말이야. 아직 젊은 못 느끼지만 분명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사회란 혼자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

매일 '완벽한 영공방위'를 다함께 외치며 시작하는 근무는 나에게 왠지 모를 사명감을 안겨 줘. 나라를 지키는 한 일원으로서의 사명감이랄까? 멋있지 않아? 너희들처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공군에서의 군생활이 멋진 경험이 될거야.

우리 공군은 단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욱 발전해 가고 있어. 장병의 복지시설, 치우개선 등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의식수준향상 등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어때, 이 정도면 답이 나왔을 거라 생각한다.

그럼 다음 편지는 공군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을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쓰면 되겠지?

더운 여름 몸 건강히 잘 지내라. 편지할게. ☺

山사람에서 공보장교, 그리고 이제 다시 사회로

공군 재경공보실 중위 김 중 식

공군 재경공보실 공보장교라는 특별한 보직 덕에 허겁지겁 군생활을 해온 탓에 전역을 불과 며칠 앞두고야 이렇게 지나온 나의 청춘의 가장 중요한 한 단계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98년 IMF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특수한 사회환경 속에서 마치 속세를 떠나 산사로 숨어든 도망자처럼 들어선 공군.

모르는 이들은 공군이라고 상상하기 힘든 격오지 산 정상 관제대대의 정훈장교로 배치를 받고선 나 스스로조차 기가막힌 도피처라 생각했었다. 당직근무를 서고 맞이하는 새벽. 온 천하를 뒤덮은 운무는 갓 임관한 청년장교에게 호연지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으며, 얼마되지 않는 부대 식구들과 어깨를 맞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홀로 머물게 된 젊은이의 외로움을 달래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러나 1년간의 평온한(?) 생활은 역동적인 삶을 꿈꿔왔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고, 잘 참고 숨어지내던 방랑벽이 다시 꿈틀댈 무렵 재경공군공보실로의 전속의 기회가 왔다.

역동적이면서 중요한 일을 한다는 말에 앞뒤 돌아보지 않고 덜컥 자리를 옮기고 나니 모든 것이 막막했다.

전속한 지 2주만에 공군창군 5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공본 정훈공보실로 파견를 가고, 예하부대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큰 행사들의 한 부분을 책임

을 지고 진행을 추진하자니 비록 중위로 진급을 했었지만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

그러나 일은 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능력은 깨지면서 느는 것이라지만 녹록치 않은 공보장교로서의 생활이 역시 순탄치만은 않게 시작되었다.

객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군의 공보 시스템 속에서 '개인기'로 풀어야 할 일이 많은 현실은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게 하였고, 종종 군내에서조차 우리의 업무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에는 그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았다.

그러나 공보 또한 '양지를 지향하며 음지에서 일한다'라고 했던가. 비록 태가 나지 않고 생색낼 수 없는 일이지만 점점 더 커져가는 매스컴의 영향력 속에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해왔고, 또 많은 결실도 얻을 수 있었다.

공보장교로서 지내온 지난 2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창군 50주년 기념행사 때 전쟁고아의 아버지 헤스 대령에 대한 취재지원을 했던 일이다.

넘치는 업무에 부족한 인력으로 장교 1명당 1건씩의 이벤트를 도맡아야 했던 상황에서 내게 떨어진 것은 헤스 대령을 알리는 임무.

보도자료 준비를 위해 헤스대령을 기억하는 이들을 취재하고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으로 어렵사리 카피본을 만들고, 입국에서부터 출국까지 그를 쫓아다



공군 보도자료

공군본부 정훈:
02) 506-6220~6 / (FAX: 02) 506-6299
서울사무소: 815-3511

R.O.K AIR FORCE NEWS RELEASE

5군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는

기지내 주기장에서 항공기 화

악 훈련을 실시했다.

시뮬레이터 조작 등

첨단 비행기술 교육

"한국 공군의 전문전기를 배우

포트 조종사들이 공군20
단에서 비행훈련을 받고
공군간 상호협력과 우호를

히 적서 주고 있다
비행단

가뭇극복 병력·장비

공군18전투비행단

18전투비행단은 최근 소방차
유 장비 4대한 확보

民家 피한 뒤 탈출하겠다

시동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불자 2분 동안 클라이프, 지난 11일부터 5일간 비
밀에서 합숙을 하며 훈련을 받
조종사들은 평천유

공작전사령부

공군 F-16조종사

‘나래 부인회’

야경전비사령부

대한 공군본부 인
12271대령은 “조
인들 기폭을
사민들이 참
자신 변 행사
3군30방공
어린아
부병중

니며 결국에는 전 일간지 및 방송과 월간
지에 그에 대한 보도를 나오게 했다. 우
리끼리 하는 얘기로 일종의 대박을 터뜨
린 셈이다.

이때의 시행착오들이 결국은 이후 내가
공보장교 생활을 하는데 밑바탕이 되었기
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것이리라.

그리고 ‘공사 첫 여성 대대장 생도 탄
생’ 건은 공본 정훈공보실의 위관장교들과
함께 만들어낸 작품으로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요즘도 계속되고 있지만, 공본
정훈공보실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홍보
기획회의라는 명칭하에 위관 장교들을 중
심으로 홍보 거리를 찾기 위한 BRAIN
STORMING식의 회의를 열고 있다. 그
홍보기획회의의 첫 결과물이 바로 ‘공사
첫 여성 대대장 생도 탄생’으로 일종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케이스다. 더욱이
이 때만 해도 디지털 사진이 군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때라 좋은 사진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밤늦게 공사로 차를 몰
고 가 구한 필름을 직접 현상까지 하는
등 몸은 고되었어도 업무의 역동성 속에
서 재미를 찾고 보도결과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외에도 각종 사건사고와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생라면을 부셔 먹으며 밤
을 꼬박 새버린 많은 날들과 말하자면 끝

도 없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여
기서 모두 열거한다면 그저 자위에 그칠
뿐 그 소중한 기억들의 의미를 잃을 것
같다.

3년의 세월, 산간마을의 평온한 정훈장
교 자리를 박차고 나와 2년 남짓 공군 공
보의 최일선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
제 나는 사회로 복귀한다.

그러나 아마도 나는 신문을 볼 때마다
27면이나 28면의 사회면을 제일 먼저 펼
쳐 군관련 기사, 그중에서도 공군 기사를
제일 먼저 찾지 않을까 싶다. 그리곤 나
의 군생활의 아스라한 추억들을 되살리
며, 이 작은 기사 하나를 통해 조출만퇴
(朝出滿退)의 혹독한 업무 스트레스에도
위안을 받을 현역 공보장교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제
경공보실로부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
는 전화고문에 시달렸던 공본 및 각 예하
부대의 실무장교와 정훈실 요원들에게 감
사드린다. 간혹 있었을 우리의 무리한 요
구와 나의 무례한(혹은 막무가내의) 요청
들은 모두 공군을 위해 열심히 뛰다보니
발생한 결과였으니 모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군 정훈실 가족들에게 무한
한 행운이 있기를... ☺

제20전투비행단 무장대대 이국진 원사

제20전투비행단 중위 고 현 석



우리 공군의 최선에 전투기 KF-16을 운용하며 조국의 영공을 든든하게 수호하고 있는 공군 최정예 비행단. 이 곳 제20전투비행단의 막강 화력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받침해 주는 최고의 무장정비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인공은 제20전투비행단 무장대대 이국진 원사. 이원사는 지난 1976년 공군 기술고등학교 8기로 입관한 이후 공군 기술고등학교 훈육관 및 태권도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82년 제3훈련비행단에서 T-59 훈련기 무장정비를 맡게 되면서 천직(天職)이 된 정비업무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96년 F-16 전투기로 기종을 전환한 후, 지금은 제20전투비행단 무장대대 무장정비사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최첨단 전자장비의 결정체인 KF-16 전투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은 필수조건. 특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항공기술과 무장시스템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

과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원사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자'라는 생활신조를 토대로 항공기 정비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해 왔다. 무엇보다 이원사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소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진주대 전자계산기학과와 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여 만학(晩學)의 꿈을 이루기도 했다.

이원사가 부대 최고의 무장정비사로 손꼽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애(人間愛)를 바탕으로 한 성실성 때문. 항상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와 더불어, 프로정신을 겸비한 철두철미한 업무수행 태도는 부대장병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업무 외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원사의 탁월함은 빛을 발한다. 이원사는 지역 청소년 지도와 생활체육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태권도 사범, 스포츠 맛사지, 기공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 진중창작전 참모총장상, 제안 참모총장상, 병영생활 명랑화 참모총장상 등, 이원사의 수상경력도 그의 능력만큼이나 화려하다.

어려운 전투임무수행 중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최고의 정비사. 펠콘가족으로서 완벽을 자랑하는 무장정비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원사의 환한 미소 속에서 든든한 믿음과 함께 우리 공군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다. ⚡

방공포병장교로 첫발을 내딛으며

제3방공포병여단 소위 김 지 혜

새천년 격변하는 21세기를 맞이하며, 나는 푸른 제복을 입은 방공포병장교가 되었고, 비로소 내가 헤쳐나가야 할 미지의 세계, 포대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포대로의 전입이 이미 결정된 후 진행된 OJT 때 유심히 보고 다녔던 아름다운 포대가 이제 내가 젊음을 바쳐 일하고 방공작전을 수행하게 될 부대라고 생각하니, 흥분과 기대 속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

누구나 자신의 첫 근무지에는 많은 애착이 갈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도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첫 부대! 훈련단 시절이나, 특기교육을 받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생각하며 원했던, 나의 이상과 의지를 펼칠 수 있는 부대가 바로 내가 지금 서있는 이곳이라는 사실에 더욱 만족스럽고 감사하다.

샘솟는 의욕에 부대 구석구석 돌맹이 하나 까지도 머리 속에, 눈 안에 그려 넣고 싶어 이곳 저곳을 돌아본다. 과연 포대의 주변 환경은 신록의 계절 속에서 그 푸르름이 날로 짙어가고 있고 부대의 분위기 또한 밝고 활기차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병사 한 명 한 명에게서까지 생동감이 느껴진다.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있다지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 영공방위의 중책을 수행하는 공군의 일원이 되었고, 더구나 유사시 최초교전의 임무를 부여받은 전투부대인 방공포병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이들과 함께 하게 될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유능하고 신뢰받는 방공포병장교, 또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중대장이 될 수 있도록, 방공포병 특기를 받은 처음 그 날의 다짐과 각오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본다.

푸른 군복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일이라는 것을 넘어선다.

나의 인생관과 삶의 목표가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군인의 의무는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과는 다른 차원, 즉 다수의 사람을 위한다는 숭고한 명분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성만의 영역이었던 이 곳에서, 방공포병 사상 첫 여성장교로서의 생활이 물론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며, 나에게 주어진 책임 또한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 자신과 내 뒤를 이어 탄생할 후배 방공포병 여성장교, 여성부사관들에게 좋은 본이 되기 위해, 선배로서 개척자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내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책임지고, 철저한 준비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아갈 것이다.

이제, 나 소위 김지혜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공군의 진정한 방공포병이 되었다. 나의 투혼과 열정을 쏟아 진정 영공방위의 첨병이 되리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해 본다. (●)

리스트의 협연

공군본부 원사 이 기 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며,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인 리스트(1789~1846)는 현재까지도 존경받고 있는 음악계의 거장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이러한 음악적 재능보다 그의 훌륭한 인격자로서의 인간미를 더욱 좋아한다. 그의 훌륭한 인격은 지금의 메마른 세상에 한 줄기 빛이요, 희망으로 다가오며 세상을 사는 여유를 가지게 한다.

여행하기를 좋아했던 리스트가 어느 날 작은 마을을 여행하다 호텔에 묵고있을 때였다. 불현듯 한 소녀가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선생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녀의 방문에, 그것도 자신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말에 리스트가 영문을 몰라 난처해 하는데, 소녀는 계속 흐느끼며 눈물을 짓는 것이었다. “자, 그러지 말고 차분히 모든 것을 말해봐요. 도대체 내게 무슨 잘못을 지었다는 거요?” 소녀는 그제야 말을 시작했다. “선생님! 저는 그 동안 시골 곳곳을 돌아다니며 연주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는 저의 연주를 들으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든 아버지의 약값과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에, 나쁜 일인줄 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선생님의 제자라고 거짓 선전을 하며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선생님께서 이곳에 와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여 이렇게 찾아와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저같이 숨쉴 수도 없는 사람이 선생님의 제자라고 거짓 선전을 해서 선생님을 욕되게 해 왔던 것입니다.”

소녀가 얘기를 마치고 다시 울먹이자, 상황을 이해한 리스트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걱정 말아요. 우리 꼬마 숙녀가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진짜 내 제자로 받아 주겠소. 가족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제자를 둔다면 오히려 내가 자랑스러울 테니 말ियो. 그건 그렇고 이번 연주회의 프로그램을 아직 인쇄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스승인 리스트와 함께 연주할 것이라고 넣어주지 않겠소? 그리고 연주를 위해 지금 함께 연습을 해 봅시다.”

소녀는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존경하는 진짜 스승을 한없이 우러러 보았다. 스승과 제자의 합동 연주회가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진행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 명협연이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리스트의 훌륭한 음악적 재능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고매한 인격 때문이다.

리스트의 훌륭한 작품도, 명연주도, 훌륭한 인격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①



모형항공기대회와 좋은 추억 만들기

공군사관학교 중사 김 영 빈

매년 5월이면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본선이 이곳 공사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벌써 23회, 나 역시 어느덧 여덟 번째 맞이하는 행사다. 그런데 올해는 교장님께서 제안하신 한 가지 특별한 이벤트가 생겼다. F-5 전투기를 성무탑 앞에 전시하고 대회참가자들에게 조종복을 대여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진파일을 디스켓에 담아 주는 것이었다. 사진촬영은 교재지원실, 컴퓨터 관련 지원은 전산소, 조종복 및 전투기 준비는 212 대대가 공조체제를 이뤄 준비를 했다.

사실 처음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 나로서는 웬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 과연 사람들이 이런 것에 흥미를 가질까 하는 의구심이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엄청나게 무더운 날씨에 대한 걱정이 앞섰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경기장에 대기중이던 선수와 가족들도 더위 때문에 무던히도 고생들을 하고 있었다. 저 더운 조종복을 입고 웃으며 촬영을 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다.

9시가 좀 넘었을 무렵 드디어 대구 사신다는 첫 손님이 방문했다. 간단한 설명 끝에 흔쾌히 촬영에 응하셔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촬영 후의 모습을 컴퓨터로 보여 드렸더니 대단히 만족스러워 하셨다. 괜한 걱정을 했다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잠시 후부터 그 모습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참모총장님께서도 바쁘신 중에 이곳을 방문하셔서 촬영에 임해 주셨다.

대개 어른들이 촬영하는 경우보다 꼬마들의 모습이 더 많았다. 그 신기해 하는 얼굴과 천진난만한 표정, 조종복 허벅지부분이 발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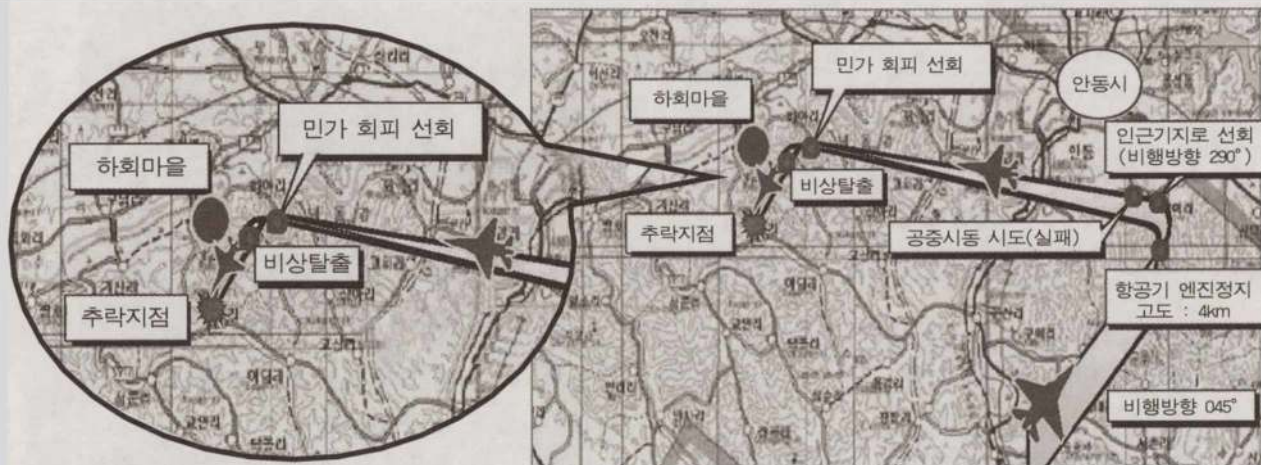
까지 내려오는 꼬마들을 보며 바쁜 와중에도 잠시나마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행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차츰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졌고 마지막은 촬영요원들의 기념촬영으로 매듭지었다. 총 판매된 디스켓의 수를 파악해 보니 207장이었다. 수량으로 보자면 얼마 안되지만 한 장당 촬영에 임한 사람이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였으니 어렵잡아도 4~5백 명이 다녀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일 이벤트로서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교장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 안 올까봐 우려했었던 사실이 부끄러웠다. 이 자리를 빌어 참시도 실패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대하며 임무에 충실했던 '좋은 추억 만들기' 팀원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또한 모형항공기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라 여러 곳에서 알게 모르게 땀흘렸던 공사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대국민 공군 홍보 활동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공군 내에서도 가장 큰 잔치인 모형항공기대회에 앞으로도 모든 공군 가족들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1)

“민가를 피해 이젝션하겠다”

긴박한 상황에서 빛난 전투조종사들의 애민정신

공군본부 공보과



“플레임 아웃(엔진작동 중지)됐다.”(사고기)

“에어 스타트(공중 재시동) 실시해. ...

뒤로 불꽃이 나온다. ...

계속 화염이 나온다. 이젝션(비상탈출)하라.

이젝션, 이젝션 ...”(동료기)

“민가를 피해 이젝션하겠다.”(사고기)

공중에서 엔진이 꺼진 뒤 곧두박질치는 긴박한 상황에서 기체가 민가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동아일보 6월 11일자 29면 기사 중)

지난 6월 8일 발생한 F-16D 전투기 추락사고 당시 사고기 조종사가 엔진이 정지되고 재시동이 되지 않아 활공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민가를 피해 야산에 추락하도록 조치하여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당시 사고기는 「야간 가상 공대지 폭격훈련」을 위하여 2기가 편대를 이루어 모기지를 이륙, 안동부근 상공에서 훈련 중이었다. 그러나 고도 4km 상공에서 갑자기 항공기에 심한 진동이 오면서 엔진이 꺼졌고, 조종사인

이진욱(李眞旭), 박주철(朴柱哲) 대위는 즉시 최인근 기지로 기수를 돌리면서 재시동을 시도하였으나 재시동이 되지 않았다.

이에 사고기 조종사들은 무동력 활공 착륙 절차에 의거 인근기지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고도가 부족함을 판단하고 「민가를 피해 Ejection(비상탈출)하겠다」라고 교신한 후 민가가 없는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기수를 바꾸고 비상탈출하였다.

긴박한 순간 속에서 진행된 조종사들의 침착한 조치로 항공기는 근처 야산에 추락하였고, 조종사는 공중탈출 최저 고도인 1.2km 상공에서 비상탈출하는데 성공했다. 추락으로 인해 소규모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다음날 오전 중에 모두 진화되었고, 다른 민간피해는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

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각 기지별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

2002학년도(제54기) 공군사관생도 모집

- ▶ 모집인원 : 〇〇〇명(여자 20명 포함)
- ▶ 교부기간 : 2001. 7. 16(월)~8. 3(금)(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제외)
- ▶ 교부장소 : 전국 13개 시·도 지방병무청, 공군사관학교 및 진주·예천 공군부대
전국 74개 협력서점
- ▶ 접수기간 : 2001. 7. 23(월)~8. 3(금)(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제외)
- ▶ 접수장소 : 전국 13개 시·도 지방병무청, 공군사관학교 및 진주·예천 공군부대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만 접수함.
(단, 2001년 8월 1일(수)까지의 우체국 소인에 한함)

▶ 구비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서식),
전형료 납입 영수증,
개인신상 OMR카드(본교 소정서식)
※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문의 : 043) 297-9156



351고지 전투지원 작전기념행사

6·25 한국전쟁 당시 3천여 명의 희생을 감수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351고지 전투를 기념하여 7월 18일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전투지원작전 기념행사가 거행됩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작전 기념식 및 기념비 제막, 참모총장 주최 오찬, 안보현장답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전용사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문의 : 02) 506-7654~6

제11차 유도무기 학술대회 개최

국방과학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유도무기부문 위원회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제11차 유도무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 일시 : 10월 25일(목) 09:00~18:00
- ▶ 장소 : 국방과학연구소 강당 및 복지회관(대전)
- ▶ 논문 모집분야
 - 체계분과 / 유도조종분과 / 기체·발사대분과 / 추진분과 / 탄두분과
- ▶ 논문 접수마감 : 9월 10일

문의 : 042) 821-2224

월간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 개재

월간 『공군』이 2001년 5월호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irforce.go.kr> → 공군소식 → 월간 공군)에 전면 개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월간 『공군』을 보기 위해서는 Acrobat PDF Reader ver 4.0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Acrobat PDF Reader ver 4.0은 인트라넷을 이용할 경우 메인 화면에서 '컴퓨터정보 & 응용프로그램 → Intranet 응용프로그램 설치'에서 Acrobat PDF Reader의 설치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http://www.adobe.com/acrobat>에 접속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월간 『공군』을 사랑하시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 : 042) 552-6234 / 호) 6234

『군사교리 연구』 제42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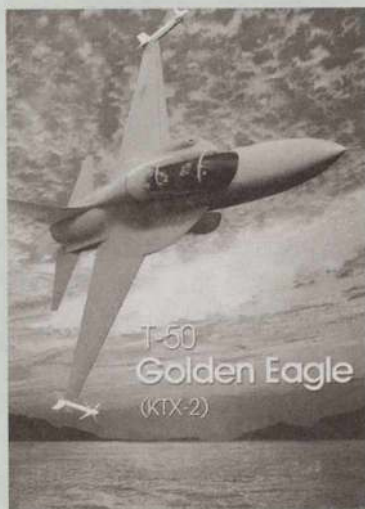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군사교리 연구』 제42호가 발간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남북 화해시대의 국가안보론」, 「21세기 전쟁패러다임의 변화와 국방 발전방안」 외에 5편의 번역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군사교리 연구』는 인트라넷(분야별 업무정보 → 전략교리정보 → 교리연구지)을 통해 논문 전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호) 5757

한국항공우주산업 T-50 훈련기 2003년 양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미국 록히드마틴과 함께 실시한 마케팅 조사결과 양사가 공동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의 해외 판매가능량이 2030년까지 3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이 전세계 150여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고등훈련기 시장수요는 약 1,200대, 고등훈련기에 무장을 탑재한 경공격기의 수요는 2,300대이며 이 가운데 T-50 고등훈련기는 350~575대, 파생기종인 A-50 경공격기는 450~650대의 판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오는 9월 출하 예정인 T-50 고등훈련기는 각종 지상 테스트와 시험비행 등의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양산을 시작, 2005년 한국공군에 납품됩니다.



■ 전쟁과 기상(상하권)

반기성 지음/명진출판
/256쪽/각권 8,500원

이 책은 동서고금을 망라해 전쟁과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책이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걸프전에 이르기까지, 날씨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한다. 지난해 펴낸 『날씨토픽』에서 “날씨는 21세기 지구촌의 최대 이슈이며 개인과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주장했던 저자의 일관된 생각이 해박한 역사적 지식과 어우러져 쓸쓸한 재미를 선사한다. 저자는 현재 군 유일의 기상전문부대인 공군 73기상전대 중앙기상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명령 관계론

이만중 지음/도서출판 진리탐구/439쪽
/20,000원

형사법을 전공한 현역 공군 중령이 명령관계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 저자는 군조직에서의 명령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존의 기계적이고 권위적인 명령-복종관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내외 관련 연구자나 실무를 맡고 있는 군 간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경제가 그런 거였나

다케나카 헤이조 · 사토 마사히코 지음
/리드북/302쪽/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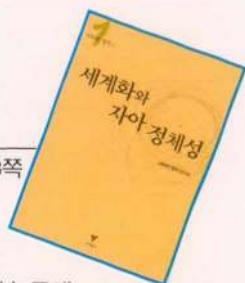
일본에서 10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고이즈미내각 신임 경제재정성 장관인 다케나카와 유명 CF감독이자 만화가인 사토,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21세기 신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제원리를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다케나카는 이 책의 대중적 인기로 장관에 입각하였다.



■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

사회와 철학 연구회 지음/이학사/308쪽
/15,000원

이 책에서는 사회철학을 전공한 젊은 철학자들이 세계화와 우리의 정체성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철학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시민주체의 가능성, 한국사회의 공동체성, 탈권위주의, 통일민족국가의 모델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한다. 또한 각 글마다 핵심용어와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준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봐두어야 할 책.



■ 하루하루가 작별의 나날

알랭 레몽 지음/김화영 옮김/현대문학
/172쪽/7,500원

가난했지만 결코 남루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이제는 석양 속으로 들어가는 한 남자의 추억담이 프랑스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담담하게 펼쳐진다. 단칸방에서 방이 세 개나 되는 집으로 이사한 대식구의 찐한 추억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살아간다는 건 익숙한 사람이나 장소와 끊임없이 작별인사를 나누는 것이라는 쓸쓸한 깨달음이 읽는 이의 감정을 놓치지 않는 고려대학교 김화영 교수의 유려한 번역 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





흔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제7전투비행단 중령 서 교 선

이 세상 살아오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고
길가의 풀잎 하나하나에도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니
그렇게 마음 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
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온전한 사랑을 언제까지나 한결같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의 구부러진 오른 손가락마디를 보면서
다시금 가슴이 저려 옵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에게
인치심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살아 갈 수 없는 것처럼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저를 지켜 보던 이도 이제는 어찌면
못 볼 수도 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세월이라는
망각 속에 묻고 나니
오히려 그것이 있었기에
더 행복한 나를 발견합니다.

구부러진 손마디는 원래대로 되지 않았지만,
아니 될 수도 없지만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깜깜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도 않습니다.

지난 날의 그 꿈과 희망과 열정이
나의 구부러진 손마디에
그 흔적만을 남기고 식어갔지만..
이제 그 흔적을 보면서 새로운 마음다움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 새봄에 돌아나는 새싹과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그 흔적을 지워버릴 새싹으로...